

## 한국정치 '제3세력' 나와야 한다

### 국회무능 - 거리투쟁 해법은 무엇인가

#### 좌담

**최서영** · 본회 자문회의 의장 (전 코리아 헤럴드 사장)  
**송복** · 본회 회우 (연세대 명예교수)  
**김순덕** · 동아일보 논설실장

사회: 문명호 본회 주필 정리: 박석홍 본보 편집위원  
때: 2014년 9월 17일 곳: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엠바고룸

#### 2·3면에 좌담내용



왼쪽부터 김은구 본회 회장,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실장, 송복 교수, 최서영 본회자문회의 의장, 문명호 본회 주필이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철영 본보편집위원)

#### 고바우 만평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이상 국회파행과 공전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장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는등 한국정치의 실종과도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회는 그 배경을 진단하고 특히 어떻게 하면 정상에서 벗어난 한국정치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긴급 좌담회를 지난 9월 17일 프레스센터 엠바고 룸에서 가졌다.

이날 좌담회엔 최서영 전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사장,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실장과 김은구 본회 회장이 참석했다.

문명호 본회 주필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 김은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의 무능으로 국회 해산론이 나오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거냐'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언론은 나라를 살릴 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며 두 언론계, 학계 원로와 현직 중진 언론인에게 고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가 정상궤도를 벗어나 여야간 싸움을 일삼고 특히 야권이 의사당을 뛰쳐나와 '거리의 투쟁'만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오랫동안 한국정치를 지켜 본 최서영 사장은 "지금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인륜도덕과 상식을 초월한 국회는 처음 보았다"며 과거 한국정치엔 나라를 위해 큰 틀에서 상대방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지도자가 없음을 지적하고 먼저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야당은 이념에 따라 분당해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좋으며 현재의 양당 독과점 체제를 벗어나 여야 온건파들이 결집해 제3세력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인이자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학인 송복 연세대교수는 한국 국회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식으로 사생결단의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조선조 500년의 사생결단 싸움 DNA가 우리에게 있는것 같다"고 진단했다. 송교수도 여야 중간세력이 국론을 수렴하는 대화자, 조정자로 나서는 것이 기대할만한 시도라고 동감을 나타냈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의 핵심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해 가장 각광 받고 있는 명칼럼니스트인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우리나라의 현 정치 상황을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미 하버드대 패어뱅크 동아시아센터 연구원을 지낸 그레고리 핸더슨의 명저)에 비유하고 오늘 한국정치의 극히 실망스러운 모습에선 국민이 정치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보다 '작은 정부' 그러나 '유능하고 스마트한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두시간에 걸쳐 활발한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최서영 사장은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선 중선거구제 같은 선거제도로의 헌법개정이 절대 필요 함을 역설했고 송복교수는 법치가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교수의 법치 확립 주장에 대해 최서영 사장도 공권력 붕괴와 각종 거짓 선전 선동,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 잡기위해선 정부가 공권력을 회복해 강력히 행사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사장, 송교수 두 원로는 우리나라의 앞날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건국 이후 3대에 걸친 노력으로 사회적 문화적 기반이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고 한국인의 특유한 바이탈리티(생명력·활동력)로 계속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그러나 항상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본회가 줄곧 한국정치 실종진단과 정상 복귀를 촉구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정치권은 벗어난 정상궤도로 차츰 돌아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야권이 '거리의 투쟁'을 중단하고 제자리인 의사당으로 복귀해 민생법안처리와 예산안 심사 등 제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화상 의원은 당을 강경 일변도로 이끈 이른바 '계파 정치'를 타파하고 여당과의 대화에 나서는 한편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심의에 나서려 하고 있다.

한편 일부 시민 단체의 자진 국회 해산을 주장하는 시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 각계 원로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선 정치인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노동원칙을 적용, 국회의원 세비 반납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같은 한국정치의 실종은 이번 긴급 좌담에서 제시된 한국정치제도의 일대 개혁과 법치의 확립으로 풀어 가야 할 긴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를 한국정치에 던져 주고 있다. [P]

# 野黨분당 이념따라 제갈길 가라

좌담 국회무능 - 거리투쟁 해법은 무엇인가

**문명호(사회)** 세월호사건이 일어난지 5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박근혜대통령이 지적한 것 처럼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싸움만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표현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나라가 정도를 벗어나 목표도 없이 달려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좌담은 나라가 분명 잘못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가 정상궤도로 돌아와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해 국가발전을 계속 이루어 나가게 할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최사장님께서 시작을 해주시죠.

**최서영** 1957년부터 1997년까지 40년간 언론생활을 했는데 주로 정치부기자로 취재하면서 정치인들의 타락한 행위, 부정부패를 많이 목격했지만 지금까지도 국민을 무시하고 상식을 초월한 정쟁 국회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건국에서 5·18까지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 학습과정으로 후진 정당체제였지만 그런중에도 정당에는 리더십이 있었고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 틀과 논리가 있었습니다. 여당 야당 간에도 타협이 있었고 그 타협과정에 일종의 윤회유평가, 돈과 권력을 나누어 갖는 거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치와 사회를 위태롭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역할은 했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방자해 정권 퇴진운동을 하면서 민생법안 하나 통과 못시키는 현 정국보다야 나은 셈이었지요, 환골탈태하는 정치개혁이 절실합니다. 스스로 못하면 국민이 나설 것입니다.

**송 복** 한국 국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식으로 사생결단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명분을 중요시하는 조선조 성리학의 DNA가 배어 있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설득 없는 싸움만 합니다. 율곡은 당시 조선의 정치모순을 논의태에(論議太銳) 토붕와해(土崩瓦解)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법 토론은 날카롭지만 흠담이 무너지고 기와가 깨지는 것 처럼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율곡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정쟁을 일삼는 정치 패거리들을 지치치배(祗痔之輩), 치질을 빼는 놈들과 다르지 않다고 욕을 했습니다. 점잖은 율곡이 그 시대 정상배를 치질 빼는 놈들이라고 준엄하게 꾸짖어도 정치가 바뀌지 않아 조선은 결국 망하고 말지요. 경술년(1910년) 8월 22일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으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긴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8월 29일 일본이 조선 병합(併合)을 공식 발표했을 때 판서, 승지, 지평 등 관리 20명과 유생, 백정 등 20여 명의 보통사람들이 조선이 망한 것을 애통해하며 자결했으나 대다수 백성들은 조용했습니다. 오사가 마이니치신문의 조선 특파원은 우려했던 1천만 조선인의 저항이 없었던 것에 놀라며 “너무 조용해 여우에 홀린 것 같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1910년 조선 병합이 조용히 이루어진 것은 일본의 무력보다 조선이 이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족과 고관대작들은 일본의 은사금 회유에 넘어갔으며 나라는 오늘의 김정일 정권처럼 굶어 죽는 서민들을 방치해서, 국민 통합 능력을 상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일부 외국인들은 조선의 과워엘리트들이 굶어 죽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부도덕성과 부패와 권력 싸움을 고발하는 글들을 남겼습니다. 정치 정략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는 오늘의 한국 정치인들이 이들과 무엇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김순덕** 송 교수님 말씀 들으니 그레고리 핸더슨의 책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가 생각납니다. 핸더슨은 동질성과 중앙 집중화를 한국사회를 해석하는 열쇠로 삼았지요.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원형이 조선시대에 있는데, 우리는 단일민족 단일언어 단일문화를 가지고 있는데다 직접



최서영 의장



송 복 교수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식 설득없는 싸움

### 조선조부터의 DNA 지속

## 80년대 운동권주류 NL과

### 소속 아지트 선동만 쏟아내

### 정파이익우선 국익은 뒷전

이라고는 농사 아니면 관료밖에 없어서 모두들 중앙 정치무대로 소용돌이처럼 빨리 들어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개인이 원자화 되어 있고 사회적 유동성이 높다는 것도 신분상승의 기대가 크고 또 기회도 컸다는 것인데, 개개인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위로만 향해 돌진하는 것이 조선의 사회풍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생결단의 DNA’가 정말 실감이 납니다. 여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386 정치인이 등장한 이후 또 다른 정치행태가 나타나게 됐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1960년대 출생한,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30대였던 386이 지금은 486이라고 불립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정권을 잡았고 2004년 ‘탄돌이’로 국회에 등장했으며 2008년 ‘폐족’으로 버림받았다가 2012년 총선에서 재등장한 정치인들의 행태는 더 극단적입니다. 이들은 80년대 대학가에서 주체사상을 공부하며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 될 나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운동권 주류였던 민중민주주의(NL)파는 90년대 초 소련이 무너지고 ‘현실 사회주의’가 바닥을 드러낸 뒤에도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반미친북’이 이들의 DNA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유신의 후예이자 전두환 정권에서 이어

져 온 새누리당과는 협상이나 타협을 할 수 없는 타도의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야가 협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의회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사 회** 먼저 정치인들은 왜 자기 일들은 하지 않고 세월호 법을 둘러 싸고 밖에서 정치투쟁만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 분노를 귀담아 듣지 않는 이 땅의 정치인들을 정신차리게 하기 위해선 어떤 회초리가 필요한가요?

**최서영** 5·16으로 도태된 구정치인들은 386정치인들보다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애국심과 국가 정체성 인식, 헌법수호 정신만은 확고했습니다. 요즘 386 정치판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으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깜짝 놀랄 말들이 많습니다. 거리에서 권위주의 정권과 투쟁하며 주장하던 시대 착오적인 말들을 지금도 금과옥조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난 얼굴로 TV 화면에 나타나 퍼붓는 막말을 듣는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386세대들의 주장은 노태우 정부의 대중융합정책으로 많이 반영됐습니다. 386정치인은 교육 평준화 국회선진화법 교육감직선제 등 이른바 민주화과정에서 도입한 법과 제도 등을 검증해야 할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386세대 정치가들이 진영이익을 고려해 모른척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송 복** 한국정치 현실은 뒤죽박죽 얽혀 다투는 십전팔복 칠등팔갈(十顛八路七藤八葛)상태입니다. 우리시대 정치는 해방직후 좌파의 아지트 정치로 후퇴해 정치인들은 소속 아지트의 아지트로(선전선동)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번 아지트에 들어가면 아지트 논리에 집착해야 하며 벗어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힙니다. 아지트 정치에 가입하면 국민의 소리나 진리가 안 들리고 오로지 아지트의 표방만이 들리나 봄니다. 그런 정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야당도 아지트 정치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는 새 정치 이념과 국가 비전을 창출해야 합니다.

**김순덕** 진보 개혁을 들고 나온 야당의 정치 행태가 조선시대 정치 DNA를 극복하지 못했더니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1948년 국가 건국 직후에도 정치는 정파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 먼저고 국가 이익이나 국민의 국리민복(國利民福)은 다음 순서였습니다. 6·25 휴전협정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미국과 사생결단하는 한·미방위조약 협정 과정에서도 야당 지도자들이 국익보다 미국편에 서서 이승만대통령을 비방했습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신분 상승과 권력 쟁취를 제일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최근에는 진영의 이익 지키기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장판을 다 알면서 언론이, 정치인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정치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위선 같습니다. 정치 스스로 개혁은 기대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압력에 굴복해 정치가 변할 날이 오겠지요.

**사 회** 특하면 의사당 밖으로 뛰쳐나가 운동권 세력과 함께 농성하고 시위를 벌이는 이 악습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정치가 국민 설득과 화합을 이루어 나가기 보다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는 현상은 우리의 대의정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최서영**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정치과정 정치인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는 헌법 개정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당위적인 주장이지만 문제 해결 방안이 못되지요. 일부 국회의원의 못된 버릇장머리를 고치기 위한 국민 소환제를 부활하는 국회법 개정 등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여야 정당, 청와대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탁

3면으로 이어집니다.

# 中 선거구제등 혁신적 개혁 시급

좌담 국회무능 - 거리투쟁 해법은 무엇인가

2면에서 이어집니다.

상공론일 뿐이지요. 그렇다고 국회선진화법에 발목 잡혀 표류하는 국정을 계속 방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은 별도로 추진하고, 우선 꼭 막힌 정치 현안을 타개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일 먼저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청와대부터 변해야 합니다. 여성대통령의 핸디캡을 보완할 기구와 참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대화 창구를 넓혀야 합니다. 경직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바꿀 설득 작업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야당은 색깔별로 차라리 분당해서 제 갈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YS 3당 통합후 형식상 동거하고 있는 이질적인 정치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야·청와대 개편으로 우리 정치는 제3의 정치 세트를 구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념과 색깔을 선명히 한 제3의 중간지대 정립이 가능해 한국의 새 정치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 제3지대는 회색지대가 아니고 국가 이념, 국가 비전을 공유하는 정치 결사체로 발전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음을 최근 여론조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당은 파산 직전이고 여당도 결속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극단 대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양당 독과점 체제를 풀어줄 여야 온건파들이 결집, 제3당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체제 해체가 어렵다면 이념이 같은 온건 중간파들이 결집할 수 있는 중간 압력 단체라도 이 기회에 만든다면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 보도를 보니 한 재야정치인이 제3의 정당인 민주당창당 신고를 선관위에 했다고 하는데 현재의 양당체제가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실패한 ‘안철수 신당’ 말고요.

송복 극한 대립의 정치판에 양극을 조화할 중간지대를 조성한다는 발상은 바람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안철수 새 정치’는 개념이 모호하고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배신감만 주었습니다. 중간지대를 회색분자로 폄하하는 DNA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제3당 창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야 중간 세력이 국론을 수렴하는 대화자로 나선다는 것은 기대할만한 시도입니다.

최서영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선거제도, 대통령임기, 국가 정체성 등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헌법개정이,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도로는 지역 정당과 정당배를 정치판에서 배제하지 못합니다. 장면 정권은 실패했으나 중선거구제도에 의한 참의원 선거는 성공했습니다. 백낙준 안호상 이범석 이인씨등 명망있는 각계 지도자와 이효상 백남익 엄명영씨등 학계에서 새 인물이 정계에 진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꾸어 국회의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김순덕 저는 어떻게 하면 정치인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그러면 정치가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변할 수 있을지...라는 데 회의적입니다. 물론 신문사에 있으니까 “당리당락(黨利黨略)”을 버리고 국민민복(國民民福)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매일 사설을 쓰고 칼럼을 쓰지요. 하지만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공천이고, 의원 당선이기 때문에 이들이 국민을 잘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변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치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도록 국민이 변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국민의 DNA가 그대로 있는 한, 내각제로 바



김순덕 논설실장



문명호 주필

여성대통령 단점 보완  
청와대기구 - 참모 보완  
여야 양당 독과점 풀어야

정치에 지나친 기대 말고  
‘유능하고 스마트한 정부’ 되게  
국민이 ‘힘’ 발휘를

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2공화국 때 혼란이 더 심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성 얘기까지 나오면 또 “교육이 문제다, 밥상머리 교육부터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정작 당면한 현실 문제는 쏙 빠지고 교육부터 나라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국가개조’ 논의로 판이 커지곤 합니다. 세월호 문제가 국가개조 문제로 바뀌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스포츠나 연예프로그램처럼, 정치인을 연예인처럼 보고 즐기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면 오히려 국민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좋은 점이 투표로 정치인들을 혼낼 수 있다는 점 아니겠어요? 평소애 잘 볼 수도 없는 정치인이 선거 때만 되면 90도 각도로 절을 하고, “바꾸겠습니다”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하니까 이때 국민이 한껏 주인 된 기분을 느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올해 두 차례의 선거 때만 해도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던 여야가 며칠 지나지도 않아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에 너무 많은 것을 해달라고 하지 않는 ‘작은 정부’ 그러나 ‘유능하고 스마트한 정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복 되고 안되는 것은 법 체계가 다릅니다. 하나는 순법체계(順法體系)가 있고 또 다른 역법체계(逆法體系)가 있습니다. 막스 베버의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에서처럼 정치인의 힘이 바뀌면 됩니다.

사회 정도를 벗어난 우리 정치, 정상궤도를 벗어난 ‘대한민국호’를 어떻게 정상궤도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단체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송복 모든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국회의원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정부는 법질서 존중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 일어난 사회 기강 해이, 법질서 파괴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세우고 강력하게 바로 잡아야겠지요.

최서영 공권력 붕괴는 정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정부가 사회 기강을 바로 잡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법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 증인이 무수한데 대학강단과 고교 공교육 현장에서 현대사 왜곡 교육을 해도 정부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정치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근절시키는 방법입니다.

송복 법치(法治)와 사회 통합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대상은 헌법을 부인하는 15~25%의 현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도 5~10%를 통합대상으로 합니다. 80년대까지는 기득권 세력과 5~10% 비기득권 세력과의 갈등이 사회통합 문제였으나 90년대에는 돈과 권력을 차지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기득권 세력의 도전이 첨예화되어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만해도 토끼대 토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기득권대 기득권의 갈등으로 호랑이대 호랑이의 싸움으로 변모해 우리사회가 공멸할 위험도 있습니다. 때문에 법치에 의한 협상이 중요하고 중간지대의 대화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사회 언론은 건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SNS상에선 온갖 비방과 왜곡된 말들이 떠돌고 있는데요.

송복 조선·동아·중앙 등 보수언론은 본연의 임무와 제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인재를 잘 교육시켜 매체가 자기 정체성을 잘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체제 언론은 아지트의 진영 논리를 부추겨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조작된 어젠다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SNS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그것도 진영논리로 양분돼 있습니다.

최서영 대체로 대중매체가 선정적인 보도로 호들갑을 떠는 인상을 줍니다. 지나친 경쟁과 흥미위주의 저질성이 참된 언론을 죽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신경 조직이며 민주화의 견인차이며 국가운영의 항해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송복 보수언론은 자기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조·중·동 세 신문이 다 똑같습니다. 반대되는 언론은 아지트논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를 크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그 인재와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최서영 나도 그렇게 봅니다. 보수언론은 계도적 역할을 멈추면 안됩니다.

김순덕 언론의 역할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 신문을 놓고 봐도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아니 팩트(fact)가 무엇인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신문에 따라 전혀 다른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얼마 전 OECD가 한국경제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는데 이른바 좌파 신문은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4면으로 이어집니다.

# 새정치란 무엇인가

박헌태 칼럼



·본회 원로회우  
·전 KBS 사장

남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요새 ‘새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되풀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랫동안 우리 정치를 관찰하고 또 참여도 해본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지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없는 문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안 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새 정치’를 부르짖었고 그가 가담한 정당의 이름도 ‘새정치연합’이라고 명명되었으나 그들이 말하는 새 정치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안개속이다. 도대체 무엇이 새 정치란 말인가. 자기가 그전에 정치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정치인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새 정치는 그들의 일신 전속물이라는 말인가. 논리가 그러하다면 정치의 문외한, 아마추어가 추진하면 새 정치이고 그 전사람이 나서면 현 정치라는 얘기인가.

그들이 몰두한 이른바 세월호 침몰사건의 ‘진상’ 발견 투쟁이라는 것도 아리송하다. 배를 침몰시킨 배후에 무슨 음모가 있었다는 얘기인지. 침몰된 배의 승객을 빨리 구출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화문 거리에는 ‘단식 농성장’이라는 천막이 쳐져있고 그 천막촌에는 ‘상황실’이라는 간판도 걸려있다. 도대체 ‘진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부라도 알거든 그것이라도 들고 나와야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주장이 먹혀들 것 아닌가. 또 단식농

성을 했으면했지 ‘상황실’이란 무엇하는 곳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거물 정치지도자라는 사람까지 뒤따라 들어가 이 단식농성에 동참했었다. 원래 단식투쟁이란 일정한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다

시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목숨을 건 비장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비장함은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도 시시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되도록 신문도 라디오도 TV도 잘 안본다. 그러다가 요즘은 자주 종교방송, FM방송을 듣는다. 들어도 무해무독한 얘기가 많고 음악도 부드러운 것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난무하느니,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시사평론들이다. 교양프로 담당자가 언제부터 그렇게 시사문제 전문가가 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찬반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한다. 그것도 애드리브로 한번쯤 코멘트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그런 말을 되풀이해서 방송한다.

방송제작에 경험 있는 나는 이것이 하나의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제작감독자의 암묵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이렇게 비전문가적 아마추어적 정치평론은 비단 국내문제뿐아니라 우리의 사할이 걸린 남북간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조금씩 양보하라는 것이다. 김정은 일파의 실상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는 눈을 딱 감고 되풀이하느니 양보론, 유화론뿐이다.

문겠는데 우리가 평화만 부르짖으면 평화가 온다는 말인가. 우리집 문패를 ‘평화의 집’이라고 써붙여 놓기만하면 전쟁은 안 일어난다는 얘기인가.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핵폭탄’과 ‘미사일’과 ‘간첩들’뿐이다. 이런 냉혹한 현실과는 거리가 먼 평화만 부르짖고 있으면 평화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민주주의는 만병통치인가. 북에는 민주주의가 있는가. 적에게는 아무 장애가 안되고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다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세는 나날이 급변하고 있다. 이것을 현명하게 극복하려면 분명히 새 정치가 이 땅에 뿌리내려야한다.

먼저 시대변화에 부응할 만큼 우리의 저널리즘에도 일대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새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마추어적, 문외한적 정치인의 등장이나 정서적 초보적 정치평론만으로는 안된다. 노회한 안목, 노회한 정치력이 개발되어야한다. 양비론을 극복해야한다. 무엇이 국가에 유익하고 무엇이 국가에 해로운가를 확실히 알아야한다.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어야한다.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한다.

논어에는 ‘군자는 근본의 확립에 힘써야한다(君子務本 本立而道生)’고 되어있다. 우리의 존립이 걸린 근본문제를 확립하지 않고는 만사가 허사이다.

이러한 나의 견해에 대하여 현역 정치인, 현역 언론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그 대답을 고대하고 있다. [4]

## 3면에서 이어집니다.

제가 원문을 보니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은 팩트이지만, 또 비정규직이 많다고 지적한 것도 팩트이지만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었거든요.

최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사건도 보십시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비교적 자세하게 팩트를 보도한 반면, 좌파 성향의 신문들은 유가족들의 ‘쌍방폭행’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같은 인터넷에서는 아예 깔아뭉개는 정도이구요. 아마도 종편이 없었다면, 종편에서 CCTV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팩트가 문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것을 두 분 선배님들이 ‘호들갑을 떤다’고 하신다면 글썽요, 완전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우선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 온갖 뉴스가 떠돌아다녀도 권위있는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구요. 이 때문에 언론의 논평 기능이 더 중요해지고, 오피니언 페이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신문의 논평은 팩트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동아일보의 경우 헌법정신을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판단의 잣대로 삼는 것을 논평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든 아든, 좌파든 우파든, 그 기준으로 보면 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수언론이 다 똑같이 보인다는 말씀, 100% 동의하긴 힘들지만 뜻은 잘 새겨들겠습니다.

**사 회** 박근혜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은 안된다는 원칙론을 말씀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던데요?

**최서영** 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부터 정치공세가 심했는데도 선거결과는 국민이 박근혜정부에 대해 호의적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 나아가 할말을 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정치판이 시끄럽지만 비관할 정도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치인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행정수반으로서 지지할 만합니다. 그런데 공권력 회복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사 회** 지금 우리 사회 모습을 ‘아노미현상’으로 보시는지요. ‘역사의 발전’이라는 대명제에서 볼때 한국은 현재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더욱 잘되어 나갈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국민적 고난을 겪을 것으로 보십니까?

**송 복** 한국사회에 소란스러운 소음과 높은 수준의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건국의 아버지들과 그 아들 손자 3대의 노력으로 나라의 기반이 튼튼해 졌습니다. 6.25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발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기구와 운영체제를 마련, 인재를 양성하고 생산성과 보급망까지 완벽하게 갖춘 것이 오늘의 성장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었고 아시아의 중요한 나라로 성장해, 국제사회에서 실패한 국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날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한국의 통일도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통일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겠지요.

**최서영** 잘 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선거를 통해 심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사회중심축이 되는 세력들이 몰락을 막을 것입니다.

**송 복** 사회가 계속 소란스럽고 높은 수준의 갈등은 계속되어 갈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사회적 문화적 기반이 잘 구축되어 왔습니다.

**사 회** 외국에서 한국사회를 보면 곧 무너질것 같아 보인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송 복** 한국사회는 기반 구축이 잘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강하고 단단합니다. 김정은은 남쪽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겉으로 보기엔 네거티브한 면이 있지만 한국인의 바이탈리티는 대단합니다. 한국사회는 논리적으로 설명할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서영** 우리나라는 어느 사이에 잘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송 복** 그러나 의구심은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으로 갈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갖는데서 사회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김순덕** 두 분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사회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전에 지리학을 전공하신 유우익 교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 극성맞은 건 알아줘야 한다. 오죽 극성맞으면 반도 끝까지 왔겠느냐”라고 해서 참 재미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극성맞음, 극단적 DNA가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더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신문이 제대로 역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 회** 오늘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정치권이 하루빨리 정치력을 복원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4]

## 정관개정등 논의

### 본회기획조정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오건환)는 지난 9월 17일 오전 본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정관개정 문제 등 몇 가지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기획조정위원회는 이날 정관 내용에서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의 회원가입자격조항을 현실상황에 맞게 조정할 것과 부회장, 이사의 정수(12조)를 늘리는 문제를 논의했다.

또 기조위는 이밖에 지방의 지부설치 등 조직확대와 젊은 회원의 영입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몇 차례 더 회의를 거친 뒤 결정사항을 정기이사회에 올리기로 했다. [4]

# 교과서 유관순 누락 정부책임 크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가 정체성과 한국 근현대사 논의가 더 혼란스러워졌다. 교육부가 검인정해서 보급한 한국사 교과서는 개악의 극치였으며 그런 수준의 독립기념관·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의 전시와 인사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역사인식 혼미를 드러내고 있다. 박대통령은 2013년 국사교육 개선을 공식석상에서 3번이나 주장했고 국사편찬위원장·교육부장관·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한국학중앙연구원장·독립기념관장등을 경질했으나 국사교과서 개선이나 국가 정체성 정립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 “국기 흔드는 문제 하나도 손 쓰지 못해”

이도형 한국논단대표는 297호 권두언을 통해 “공권력을 바로 세워 한국병을 치유해주기를 기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가 됐다”며 “박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문제 어느 하나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새 검인정 한국사교과서 4종이 유관순 열사를 아예 누락시키고 있는 것을 방관한 교육부가 주최한 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에서는 “유관순은 친일파가 조작한 영웅”이라고 폄훼(貶毀)하는 막말이 등장하기 까지 했다. 이 토론회에서 홍후조 고려대교수가 “역사를 전공한 집필자들이 유관순 열사의 역사적 의미를 모를 리 없는데 4종 교과서에서 뺀 것은 편향된 인식을 공교육 교과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는 연구에 의해 뺀 것”이라고 망언을 한 것이다. 김정인 교수의 막말은 시인협회가 2013년 펴낸 ‘사람-시로 읽는 한국 근대인물사’에 ‘그리운 미친년 간다’로 시작하는 유관순 열사를 미친여자에 비유한 시를 올린 정호승이 ‘창녀’, ‘문둥이’, ‘바람남 어머니’ 등의 비속어로 유관순 열사를 모독한 데 이은 두번째의 목과될 수 없는 망발이다. 김교수 망언은 정상우 서울대 강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연구비 지원으로 만든 논문을 인용한 것으로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서울대 국사학과·현대사학계가 연계된 좌편향 한국 현대사 인식의 문제를 노정한 것이다.

김정인 정상우를 가르쳤던 한 서울대 명예교수는 유관순 열사 폄훼로 표출된 국사학계 일각의 반미·반기독교 의식은 운동권 세대의 집단 의식이라며 이것을 바로잡아줄 용기 있는 선배나 스승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탄했다. 이교수는 운동권 세대들이 3·1운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운동만 높이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독교·동학 등 신 세력이 일제(日帝)에 대항해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 3·1운동은 구체제를 뛰어넘어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의 기초를 다진 혁명의 도화선이었다. 3,000명이 참여해 19명이 살해되고 30여명이 다친 아우내장터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는 새 시대를 선도한 신 세력의 상



박석흥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전 독립기념관 감사

## 교육부주최 토론회 “친일파가 조작” 망언 그대로 넘어가

## 독립기념일 전시물 특정세력에 편중 이승만외면 인상

징이다. 유열사를 검인정 한국사교과서 4종은 삭제했으나 일본 소학사회 6학년 교과서는 유열사가 일본 법정에서 “일본인에게 우리들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 죄인으로 심판 받아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일본인이다” 라면서 일본의 재판을 거부한 것을 기술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항거하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를 해외에서 활약한 의사나 사회주의 계열 투쟁보다 과소 평가하는 것을 목인한 역사인식엔 분명 문제가 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유관순 열사를 뺀 것을 거론하면서 계급투쟁사관으로 기술했던 한국사 교과서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검인정 한국사교과서가 사회주의 혁명적 가치관과 제도를 미화하는 좌파단체의 선전 선동용 자료에 가까운 저질 교재라고 고발하기도 했다.

슈티코프 일기 등 구소련 문서 공개를 통해 대구 폭동·제주 4·3 사태 등이 소련군의 자금 조달과 지령으로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운동으로 거짓 기술했던 한국사 교과서도 있다.

##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부분 많아

이동복 전 국회의원은 건립초기의 선명성이 퇴색된 독립기념관의 새 전시가 건국 과정과 산업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현양하는 부분이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이 전 의원은 독립기념관의 전시물이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건국 및 남북분단의 과정을 주도한 국제정세의 흐름을 도외시한 채 특정 세력의 독립운동에 편중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 같은 전시물이 청소년들에게 편협한 민족주의 의식으로 왜곡된 독립관을 주입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건국은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민족적 노력과 유엔이 산파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과 이렇게 건국된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의하여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되고 북한 정권은 정통성이 없는 ‘비합법 정부’가 되었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도 독립기념관 새 전시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 전 의원은 지적했다.

우리 독립 선열들의 독립운동은 방법·이데올로기·목표가 다양했었다. 이 같은 다양성을 도외시하고 특정학파나 특정세력의 주장만이 강하게 반영된 전시는 독립운동의 진실과 메시지 전달에 문제가 있다. 특히 해외 독립운동 중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활동 등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다. 독립기념관 전시물이 잡다한 사회주의운동을 나열한 한국사 교과서 수준이라는 학계의 비평을 귀담아 듣고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육과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에 좀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체성을 서둘러 바로 잡지 못한다면 국민의 지지와 시대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다. [주]

## '100자 발언대'

### 거짓말을 해야 정치인인가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국회의원의 경찰진술(폭행장면을 보지 못했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거짓말을 하면 친구 간에도 절교 사유가 되는 것이고 정치인의 거짓말은 정치생명 뿐 아니라 인생까지도 파멸의 길이라는 게 선진국의 당연지사.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해야되는 풍토인가? 우리 정치주변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다. 거짓말 있는 곳에 행복은 없다. 거짓말을 몰아내자.

김진기(본회 논설위원)

### 성희룡 안하는 멋진 골퍼 될 수 없다

○…최근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원로 정치인의 도우미 성희룡 사건이 뉴스에 크게 부각되면서 전국 골프장의 골퍼들이 초 긴장상태. 이제 접잡은 사회 지도층 인사일수록 골프장에 입장하기 전에 성희룡 범죄가 무엇인지 사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남성들이여! 밝고 아름다운 사회, 품위 있는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희룡 없는 멋진 골퍼들이 되도록 모두 각성합시다.

윤재홍(본회 논설위원)

### ‘제 얼굴 먹칠’도 모르는 美 일부 교포들

○…박근혜대통령의 뉴욕방문 기간 중 일부 교포들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광고를 미국신문에 내고 반정부구호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그 배후세력이 누구이냐를 떠나 “한국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줄도 모르는 모양”이라는 외신기자들의 반응에 얼굴이 화끈.

윤기병(본회 상담역)

### 공무원 연금 어떤 일 있어도 개혁해야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2.3배를 받는다. 문제는 공무원 연금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 준다는데 있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거둬 공무원들의 안락한 은퇴생활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에 기금이 바닥나 올해 만도 2조 5천억 원을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이보길(본회 회원사업위원장)

# 간첩사건 잇단 無罪판결 ‘矯正’ 시급

아, 이 바람도 추풍(秋風)인가. 반세기 전 미국 사법부를 휩쓸던 좌파 바람이 대한민국 법조 일변을 휘감아 돌고 있다.

## ‘미란다원칙’ 法理 내세워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가 9월 5일 북한 대남 공작기관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지난해 8월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한 40대 직파(直派)간첩 홍 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건 법리는 미 연방대법원이 1966년 6월 13일 판결로 확립해 전 세계에 수출한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다. 수사당국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하거나 신문하기 전에 그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 곧 묵비권(黙秘權)이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변호인 선임권 등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 검찰이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그의 진술서 등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밝혔다. 따라서 범행을 자백한 자필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는 물론, 재판부가 직접 제출받은 반성문도 외부 압박 등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요지였다.

검찰은 “8개월 동안 수집한 객관적 물증 50여개조차 배척했다”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간첩 혐의를 입증하고도 남은 증거들을 사소한 절차 미흡을 이유로 아예 판단하지도 않는다면 간첩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나는 항변이다. 하지만 어쩌랴, 재판부가 그 증거 대부분에 대해 ‘위법 수집’이라는 심증을 굳혔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를 관철할 수밖에.

직파 간첩사건에 앞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피고인의 간첩 혐의 부분에 대해 지난해 8월 22일의 1심과 지난 4월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의 일관된 무죄 선고 근거도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는 절차의 정의였다. 두 사건의 무죄가 모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개가(凱歌)’라는 점도 시사적이다. 서울 도심의 집회 시위 난장(亂場)에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라면 그 자리에서 불법체포 현행범으로 호명돼 시위꾼들에게 짓밟히는 악몽을 상상하게 해온 그 민변 그 위하력(威嚇力)이 새삼스럽다.

실체적 진실에 앞서 그 절차부터 정의로워야 한다는, 죄와 벌의 그 대원칙을 뉘라서 가타부타하랴. 그러나 그게 금과옥조(金科玉條), 더 나아가 ‘민변의 보검(寶劍)’쯤 된 이 땅의 형사사법 현실은 이미 여간 심각한 상황이지 않다.

## 범죄자인권 최우선 시대로

미란다 원칙부터 그렇다. 1960년대 미 연방대법원을 고뇌하게 한 숨은 무늬를 다들 너무도 소홀히 여기고 있다. 원칙의 액면만 쳐다보는 한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가, 적법 절차가 중요한가’라는 택일(擇一) 설문은 오래 전에 정오(正誤)가 갈리었다. 형법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그 범죄자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 그 이상을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도 고색창연한 화법이다. 이젠 조사와 수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범죄라도 별할 수 없게 된 세상, 일컬어 인권의 세상이다. 1960년대 미 연방대법원에서 미란다 사건을 기다려 새 법리를 정리해낸 ‘제14대 월 워렌 코트’의 별명도 ‘절차의 혁명 사법부’였다.

그 때는 미국 역사를 통틀어 무척이나 혼란스러워, 흑백을

## 특별기고



홍정기

·문화일보 논설위원

## 실체적 진실보다

## 사소한 절차이유

## 民辯손 들어줘

## 공안사건을

## 형사사건차원 재단

## 국가존립 위협할수도

비롯한 인종 갈등에 베트남전 반대 시위는 도화선이 어지러이 얹히고설킨 폭약이었다. 미란다를 ‘인권의 원칙’으로만 읽는다면 인권과 함께 당시의 미국 사회를 관통한 또 다른 문제 곧 ‘인종’을 놓칠 수밖에 없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이 주목한 각종 사건의 장본인도 대부분 유색인이었다.

범죄자의 인권에 앞서 그들 동류의 분노에 대한 적절한 완충 내지 여과 장치를 두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더더욱 혼란스러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시민의 재산과 자유를 건사하기 위해서는 1963년 3월 어느 날 한 밤중에 19세 처녀를 애리조나 피닉스 근교 사막에서 강간한, 당시 21세의 히스패닉계 어네스토 미란다같은 형편없는 범죄자라도 또 사람같잖은 그 죄질을 훤히 다 알면서도 과감히 석방하는 ‘새로운 선택’이 불가불 필요했던 것이다. 좌파 바람 아니었더라면 흑달랐을까. 역사의 가정은 늘 부질없지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론’,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해서 미국을 지킬 수 있다면 해방할 것이며 노예를 해방하지 않아야 미국을 지킬 수 있다면 역시 해방하지 않을 것이라던 그의 지론을 떠올리면 좌파 바람 아니더라도 조만간 그리 되지 않았을까 싶다.

## 수사절차편의 배려해야

만약 그 원칙이 절대선(絶對善)이었다면 그해 6월 그 판결의 연방대법관 찬반 분포가 5 대 4였을 리 없었을 것이다. 또 그 이후 연방대법원에 “범행 자백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뤄졌는지는 미란다 원칙의 기계적 준수 여부가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는, 줄기차고 만만찮은 반대 의견이 면면히 이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에서, 특히 공안사건 재판에서 국가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물론 진실이 무엇이나만을 따지던 시대에 죄지는 사람을 풀어주면서까지 내건 절차의 정의가 인권 사법의 개화(開化)였음을 한 획이라도 평가절하할 일이 아니다. 다만, 절차의 정의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스럽게 해선 안된다는, 미란다 원칙의 행간 무늬까지 마냥 스쳐지나쳐도 좋을 일은 아니다. 미국도 1960년대 워렌 코트의 좌파 성향이 2000년대 진입을 전후한 윌리엄 루트 코트의 우선회(右旋回)를 거쳐오면서 다시 국가와 국익을 앞세워오고 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이후에는 ‘애국법’을 통해 혐의자가 사용하는 모든 전화의 감청을 허용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도 ‘수사 절차의 편의’를 위해 배려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영장없이 최장 7일을 구금할 수 있다.

직파 간첩사건의 항소심을 비롯, 공안 사건 각 재판부는 헌법의 핵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의지를 더 엄정히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공안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차원에서, 이를테면 판에 박은 인권 잣대로만 재단한다면 끝내는 그 잣대를 잃고 만다는 것이 방어(防禦)민주주의의 자계훈(自戒訓)이다. 교정(矯正)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가 우방각국의 선진 입법례를 좇아 감청 허용, 압수수색 영장제도 보완, 일정 범위를 벗어난 변호인의 참여 제한 등 특례 입법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민변도 범죄용의자를 체포하려는 경찰이 적법 절차에서 한 치 어긋나면 되레 그를 체포해도 되는 나라, 대한민국을 그런 막된 나라로 잘못 밀쳐온 죄책을 정법(正法)의 감수성으로 되돌아보고 간첩 사건에까지 그런 유의 ‘불의 무장(不義武裝)’을 늘리진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법률가단체라면 변호사법 제1조 1항 그대로 ‘인권, 정의’를 함께 말해야 한다. [주]

## ‘동포2세 병역문제’ 심포지엄

10월 27일부터 본회 - 재외동포 언론인협회 공동주최

대한언론인회는 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김훈·이하 재언협)와 공동으로 ‘동포2세 병역문제’, ‘동포청 신설건의’ 등을 주제로 가을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서울 목포보성 등에서 개최될 심포지엄에는 주요 동포언론사 간부 35명과 국내 임원진,

대한언론인회원 등 모두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27일 개막식에는 국방부 병무청 등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1부는 동포2세의 병역문제와 재외동포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

을, 2부는 동포청 설립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과 동포언론의 입장 등을 다룬다. 또한 △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의 ‘대한민국 현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관광자원의 홍보방안과 외국인 의료관광 확대방안’ △인천경제자유구역(IFFZ)측의 ‘송도국제도시 투자유치 현황’ 등에 관한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대한언론인회와 재언협은 심포지엄 이후 정부에 동포청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정 브리핑과 환영만찬도 계획되어 있다.

이어서 목포시 현장취재와 전남도정 브리핑 청취, 이용부 보성군수로부터 ‘보성군이 지향하는 선진농업 - 문화관광 - 복지와 친환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성군 의회, 보성 생산자협회의 등과의 간담회와 순천에 들러 정원 및 순천만생태공원 현장취재도 할 예정이다. 대한언론인회는 지난4월 재언협과 함께 처음으로 재외동포언론인대회를 공동주최한 바 있다. 재언협은 지난 2002년 창립되었으며,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대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해오고 있다. [주]

# 좌파 교육감 독선정책 막아야 한다

## 재량평가 비중 높이는 꼼수동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감에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이 9월4일, 8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합격' 평가를 한 자사고를 재평가와 재재평가를 거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2010년 7월 취임 직후 전임 교육감이 자사고로 지정했던 두 고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학교 재단과 교육부가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에는 외고가 6곳, 자사고가 25곳이 있다. 외고나 자사고 모두 공통적인 자율학교다. 자사고 폐지 이유가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라면서 외고를 빼놓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오해 받기에 좋은 처사다.

조희연교육감은 결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평가 결과를 가지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송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교육감이 실시한 1차 평가에서는 모두 기준 점수를 넘어 합격판정을 했다. 그런데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되어 7월에 부임한 조 교육감이 자사고를 탈락시키기 위해 평가기준을 자기 식대로 바꾸어 2차, 3차 평가를 해서 8개의 미달학교를 만들어 낸 것이다. 조 교육감의 숨은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재량 평가 비중을 2배로 높이는 식의 꼼수 평가는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학부모와 학교의 반발은 조 교육감의 평가가 공정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이 자신의 취임 전에 완료된 자사고 평가 결과를 뒤집기 위해 2차, 3차 평가를 강행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는 교육감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의 자사고 가운데 탈락 점수를 받은 안산 동산고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 권고를 받아들여 지정 취소를 철회한 바 있다.

## 분쟁 벌어지면 학생들만 피해

조 교육감은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죽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고는 학생만족도가 높고 일반고는 학생만족도가 낮다. 이것은 자사고 때문이 아니라 일반고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일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한 학교당 연간 25억~30억 원씩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연간 3억~5억 원씩의 지원금을 줘야 한다. 8개 학교라면 연간 약 24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자사고 취소문제로 조 교육감과 해당 학교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명단을 발표해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신입생 모집을 방해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자사고는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가한 수월성 교육기관이다. 수월성 교육은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 교육감 역시 모를 리 없다.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보내 졸업시킨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8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는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강력 반발하며 교육감 퇴진 운동에 들어갔고 자사고 교장들은 단체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 교육감이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말은 구실에 불과하며, 혁신학교를 늘려 학교를 '의식화교육'의 산실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하다. 조 교육감은 위기에 빠진 일반고 학생들의 불만을 자사고에 돌리지 말고 학생들이 만족하는 자사고의 교육방법을 일반고에 이식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할 일이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인가되었다.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해 수월성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학생자비부담 학교다. 일반고 3배의 등록금을 내고 선택한 자사고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서 배울 권리가 있다. 조 교육감은 자기자녀는 외고로 보내 특혜교육을 받게 하고 자사고 학생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조 교육감의 독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사고 죽이기' 집착은 교육 혼란을 가중시켜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조 교육감은 학교, 학부모,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 자사고 폐지로 서울교육을 혼란 속으로 몰아 가고 있다.

## 교장 재량권 침해 일방적 결정

학교 등교시간은 명백히 학교장의 권한이다 그런데 교육감이 나서서 결정한 것

## 특별기고



###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전 양천고 교장

## 외고는 그냥두고

## 자사고만 지정 취소

## 혁신학교 늘려

## 의식화교육 산실로

## 만들려는 의도 의심

## 경기도 9시 등교

## 학생말만 듣고 시행

## 현실과 동떨어져

## 애국가 낮춰부르기

## 학생영혼 병들게 해

은 학교장 권한 침해다. 모든 교육을 교육감이 직접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시행한다면 교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 또 초·중·고등학교별로 상황이 다 다른데 일괄적인 9시 등교 시행은 교육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9시 등교는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의 총학생 수인 162만3천469명과 그 가족 전체의 일과에 영향을 주는 일이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재정 교육감 '9시 등교'에 대해 분통을 터트린 학부모들의 항의 글이 수백 건 올라와 있다.

9시 등교는 학생들에게는 학원가는 시간이 늦어져 귀가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아침등교시간 보다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교육감이 등교 시간을 늦추려는 명분은 청소년들이 아침 잠을 설치지 않고 여유 있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맛벌이 부부는 자녀를 9시에 등교시키면 출근시간을 대지 못하고, 대학입시를 눈앞에 둔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수능시험시간 8시에 등교시간을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다. 3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이재정 교육감은 그를 지지 하지 않은 64%의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존중해야 한다. 9시 등교는 초·중·고등학교 근무경험이 전혀 없는 교육감이 7월에 취임해 제대로 된 공청회나 여론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졸속정책이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늦추는 데는 10년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전문기관 용역과 한해 10차례 공청회를 거쳐 투표에 부쳐 시행여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 교육감은 “9시 등교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이자 비정상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라고 했다.

‘공교육 정상화’란 공교육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높여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빠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공교육을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등교시간만 늦추면 공교육정상화가 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다.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교육감이 비정상적인 학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권리 주장에 앞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교육감이 할 책무다.

## 경기도 교사 82.9%가 9시 등교 반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경기 지역 교원 1411명을 대상으로 '9시 등교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응한 교원 82.9%(1,133명)가 9시 등교 전면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7.1%(234명)에 불과했다. 9시 등교에 반대하는 이유는 △9시 등교 정책이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36.9%) △학생·학부모·교원 등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서(32.3%) △교육감의 공약을 강조한 획일적 정책(27.6%) △학교장 재량이라는 법령 위반이기 때문(3.2%)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재정 교육감은 9시 등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등교는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감은 권고하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고 한다. 등교시간 결정은 교장의 고유권한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제라도 단위학교 교장이 학교실정에 따라 등교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감은 교육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 애국가를 장송곡조로 부르게

서울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폐지, 경기 이재정 교육감의 학생 9시 등교에 이어 9월부터 전격실시하고 있는 또 다른 정책이 애국가 3도 낮춰 부르기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황 방문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애국가 3도 낮춰 부르기 시행지침을 학교에 전달했다. 이재정교육감은 9시 등교 지시 하루 만에 애국가 3도 낮춰 부르기 각 급 학교에 지시했다. 이는 애국가 ‘말살 정책’이나 다름없다.

애국가의 원곡에서 느껴지는 기백과 장엄함은 어느 나라 국가에서도 느낄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가사와 곡이다. 그러나 3도 낮추어 부르면 아주 우울하고 어둡고 맥 빠진 마치 장송곡같은 노래로 변해버린다. 결국 애국가를 장송곡조로 바꾸어 가르치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영혼에 어둡고 우울한 정신을 심어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진 안 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문제의 교육감들의 의식화교육정책이다. 국민들은 문제의 교육감들을 철저히 감시해서 아이들 영혼마저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 영혼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사실을 국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 다시 본 아시안게임 半세기의 감회



이태영

·본회 상담역  
·6·25 남북인사가족회 이사  
·전 중앙일보 섹션국장

이제는 아시아시대. 잠자는 용을 흔들어 깨워 아시아가 새 날을 맞고 있다. 문명 동진설을 증명하듯 아시아의 가치, 특히 동아시아 파워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 한·중·일 3龍이 있다.

우리나라 근대화의 문을 연 곳,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화의 힘찬 발진을 상징하는 곳, 그런가하면 서양의 문화와 신앙까지 받아들이고 6·25전쟁의 전환점을 만든 곳. 그래서 인천은 한국역사의 새 장을 펼치는 동력을 만들곤 했다. 바로 이곳에서 아시아축제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세계정상급의 뜨거운 승부도 그러하려니와 새롭게 떠오르는 45억 인구가 펼치는 향연은 세계적 뉴스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민족갈등의 슬픈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아시아평화의 문을 열 수만 있다면 더 말해 무엇하랴. 이른바 天時地利 다음의 人和를 뜻한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표방하는 ‘평화의 숨결’과 다문화를 꽃피우는 다양성(diversity)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 더욱 주목할 일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에 증오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화해의 빛을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다. 북한이 이 땅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건 2002년 부산대회에 이어 두 번째, 유니버시아드와 통일축구 등 단일종목 교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순수한 스포츠정신과 포용정신의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다.

이제는 누가 무어라 해도 한국이 아시아리더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스포츠 경기력과 국제 경쟁력을 떠나 다문화의 감동사례와 함께 韓流바람을 각인시켰다. 그런 점에서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냉혹한 승부가 아니라 나눔의 모토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금메달 100개 도전이라는 목표에 매달리기보다 아름다운 명승부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슈퍼스타들이 펼치는 세계적 승부일지라도 평화를 담보하는 페어플레이에 우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 번째 우리 땅에서 아시아 세리머니를 보는 감동은 좀 특별하다. 86년 서울에서 비를 맞으며 구슬픈 춤사위를 연출했던 그 애절함 그대로 이번에는 심청과 비류의 만남을 통해 이웃과의 평화를 기원했다. 청사조룡을 밝힌 한국미는 K pop의 신바람 열정, 탤런트의 한류바람과 함께 또 한 번 갈채를 모았다. 그러나 아쉬움이라면 성화점화자로 연예인을 동원한, 전례에 없는 ‘넌센스’였다. 아시아의 눈길을 끌어보자는 계산이었을 테지만 스포츠제전을 연예판으로 만든데 대한 국내외의 비판여론이 너무 거세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는 고은 시인의 헌시와 그 감상을 더 깊게 해준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였다. 〈아시아여 노래하라. 아시아 청춘과 함께 인천을 노래하라. 아시아민족들이여, 영광의 아시아를 노래하라〉는 내용의 이 서사시는 아리랑가락을 곁들여 세계를 향한 애달픈 호소처럼 들렸다.

인천 세리머니를 참관한 필자의 눈길을 끈 게 있다. 북한 선수단이 입장할 때 스탠드 한쪽에서 젊은이들의 박수소리가 요란했다. 북한선수단도 걸음을 멈추고 답례를 보냈다. 태극기를 흔들며 북한동포를 환영하는 그 장면에서 남북형제의 대립과 갈등이 조금씩 풀릴 수도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보

았다. 지난날 한반도 단일기의 모순이나 일부의 인공기계양 시비도 사라진 게 다행이다. 아무튼 인천 세리머니의 효과는 2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세계화과정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표방하는 한마당 국판인 셈이다. 이번 인천무대를 무려 20조여 원을 파부었던 4년 전의 중국 광저우무대와 견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86 서울아시안게임 때처럼 국민적인 뜨거운 관심과 호응으로 여러 가지 감동스토리를 만들었는가 하면 공산권 외교의 장벽을 허무는 효과도 있었다. 40년 전 테헤란에선 남북이 협상국은 얼굴로 신경전을 벌이고 20년 전 히로시마 때는 그곳 평화공원에 잠든 많은 희생자들 영혼의 안식을 빌면서 극일(克日)을 외쳤던 기억도 남아 있다. 필자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아시안게임 무대현장을 여러 차례 지켜본 만큼 그 역사의 흐름은 물론 잊지 못할 사건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1966년 제5회 방콕 아시안게임에서는 처음으로 종합2위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갈등으로 손기정 선수단장이 사발 귀국하는 해프닝이 있었으며 체육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1970년 대회를 서울에 유치했다가 안보문제와 경제난을 이유로 반납했던 부끄러운 기록도 있었다. 당시 반납의 대가로 25만 달러의 적자보전금을 차기 인수국인 태국에 지불해야만했으니 국제적 망신을 당한 셈이다.

서울올림픽 리허설의 성격으로 유치했던 86 서울대회는 여러 가지 명승부와 감동스토리를 연출했으나 지나친 애국심의 텃세라는 무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 결과 금메달 1개 차이로 중국과 종합 1위를 다투는 상황에 이르자 한국선수단에 “더 이상 금은 필요 없다”는 메달경계령을 내렸다는 후문도 있었을 정도다. 어쨌든 88 서울올림픽이 그렇듯 86 아시안 게임도 공산권의 장막을 제치고 거인 중국과의 수교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경기에서의 승리를 통해 국민자긍심과 통합효과까지 이끌어낸 것 못지않은 역사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선수단이 처음 우리 땅을 밟은 2002년 부산대회에서는 ‘우리 민족은 하나’라는 일체감과 평화무드를 연출했으나 북한의 미녀응원단에 취하여 스포츠제전의 본질이 퇴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웠다. ‘다대포항의 눈물’이라는 신문타이틀에서 보듯 이때는 너무 감상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 인천 대회를 지켜보는 세계미디어의 포커스는 역시 이 대회를 계기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풀릴 것인지에 모아져 있다. 여기서 재확인할 일은 순수한 스포츠제전을 다른 목적에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인천 자유공원에 우뚝 서 있는 맥아더는 증명하리라. 64년 전과 오늘의 인천, 그 보다 전쟁의 폐해를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의 기적을 - 그리고 전쟁의 망령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자유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웅변하고 있으리라.

먼 옛날, 바다 길을 만들고 하늘의 문을 열고 섬과 물을 가교로 이은 근대화의 驚異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아시아가족의 저마다 다른 競演을 즐기며 갈채를 보낸다. [4]

## 仁川 세리머니

## 평화의 불꽃

## 개회식 큰 감동

## 스포츠 제전

## 정치적 이용시도

## 절대 용인 돼선 안돼

## 수필

## 보람찬 여름휴가

나는 요즘 중고등학교 강의를 나가면 첫인사가 날씨가 서늘해 졌으니 공부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는 모양이다.

지난 9월 1일 비가 온 후부터는 ‘매미소리’가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요즘도 안사람과 같이 매일 뒷산(서달산)에서 가벼운 운동 겸 조깅을 한다. 한 시간 반쯤 걸린다.

한여름에는 그렇게 울어대던 매미소리가 이제 자취를 감추고 귀뚜라미 소리와 풀벌레 소리로 교체가 됐다. 매미

는 7년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자라다가 땅밖으로 나와 7일간만 살다 이승과는 작별을 한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가는 것은 우리 인생과 같은 운명이 아닌가 싶다. 나는 지금도 용문산 계곡에서 울어대던 한여름의 매미소리가 귓전에 울리는 듯하다. 올 여름 안사람과 함께 일주일간 용문산 계곡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금년은 왜 그렇게 더운지. 그런데도 휴가는 너무나 뜻 깊게 잘 보낸 셈이다. 경비도 얼마 들이지 않으면서 3권



김휴선

·본회 회우  
·전 MBC 부국장

의 책을 읽었으니 말이다. 그것도 안사람도 같이 3권의 책을 바꿔가며 읽었으니 우리 집은 6권의 책을 읽은 셈이 된

다. 비용도 한사람의 점심값이 7천원. 우리부부 두 사람 합쳐봐야 1만 4천원. 그래서 일주일에 든 비용도 10만원이 채 안 된다.

용문산 계곡은 입구에서 걸어 절까지 가는 데 30여분 걸릴까. 길 양 옆으로는 천연림이 뽁뽁이 서있고 개울물이 졸졸 흐른다. 개울가 양 옆에는 쉴 수 있는 곳이 많다. 돛자리 하나만 들고 가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곳이 있다. 길을 가다보면 계곡 중간쯤에 공연장도 마련돼 있다. 주말에는 ‘인디 가수’들과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산사의 음악회’를 연다. 조용히 들려오는 음악소리와 개울 물소리에 취해 금년 한여

9면으로 이어집니다.

# ‘인생 2막’ 취재하다 인생 2막 열었다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의 베스트셀러 소설 ‘창문을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 영화로 제작되어 국내 상영 중이다. 주인공 ‘알란 칼손’이 100세 생일을 맞아 요양원을 탈출하며 벌이는 좌충우돌 휴먼 코미디다. 100세에 요양원 창문을 넘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유쾌하다.

바야흐로 호모 헨드레드(Homo Hundred) 시대다.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는 유행어가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로 바뀌는 추세다.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 100세 이상 어르신은 1,836명. 황수(皇壽·110세) 잔치가 잇따라 열릴 전망이다. 중국 후난성(湖南省)의 텐룽위(田龍玉) 할머니는 지난해 6월 120세 생일을 맞아 화제가 됐다. ‘120세 시대’가 먼 훗날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언론인들은 팽팽한 긴장과 술·담배에 찌들어 오래 살지 못한다는 통념이 깨지고 있다. 본회 만해도 여든 이상 원로회우가 140여명이다. 그 가운데 6·25 종군기자와 참전회우가 48명이나 되니 짧은 수명이라 할 수 없다. 지난 2008년 10월호부터 올해 3월호까지 본지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에 소개된 선배들도 올해 아흔 일곱인 김진섭 원로회우를 비롯하여 70대 후반부터 80대 중반 사이다. 여전히 여생을 치열하게 산다. 일과 봉사가 건강 비결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 팔십대도 팔팔한 현역

지난 4월호부터 연재를 시작한 ‘인생 2막’ 주인공들도 경륜과 열정으로 신문과 잡지, 인터넷신문 발행과 언론현장 복귀로 노익장을 과시한다. 특히 대중성 없는 외교전문 영문 월간지 ‘Diplomacy’(임덕규)와 ‘Korea Post’(이경식) 발행인은 팔십대에도 팔팔하게 30~40년 동안 결호 없이 이끌어왔다. 저력이 대단하다.

## 8면에서 이어집니다.

를 시원하고 보람되게 보냈다.

용문산 계곡은 용산역에서 중앙선(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달리면 용문역에 도착한다. 도착하자마자 현지 음식점들이 손님을 유치하기위해 셔틀버스를 준비해 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기가 좋겠네’란 음식점에서 나온 대형버스를 타면 싼값에 차비는 공짜다. 논밭사이를 가로 질러 코스모스가 핀 길을 약 10여 분간 달린다.

곧 ‘한식뷔페’가 나온다. 줄잡아 300여명은 이용할 수 있는 큰 식당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까닭인지 점심시간에는 만원이다.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다. 막걸리와 소주는 각각 2,000원을 받는다. 작년까지만 해도 천원이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대형버스로 용문사 입구까지 데려다 준다. 오후 5시 이전에만 나오면 역시 무료로 용문역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서울까지 오게 된다.

## 日刊 ‘브릿지 경제’ 논설위원을 맡으며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  
·칼럼니스트

21세기를 ‘트리플 30세대’라고 한다. 30년은 부모 그늘에서 살고, 30년은 부모가 되어 자식 뒷바라지하고, 60년 이후가 자신만의 여생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사회 노인들의 여생은 여유를 누릴 만큼 안녕하지 못하다. 65세 이상 600만 명 가운데 60% 가량은

는 선배들을 취재하다 보니 ‘인생 2막’ 무대에 오르는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 9월 15일 창간된 ‘브릿지경제신문’ 논설위원 역할이다. 편집위원 7년차, 크게 기여한 바 없는 단역(端役)을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브릿지경제신문’ 오너는 대전·충청지역



지난 9월 15일 발행된 ‘브릿지경제’ 창간호 ‘100세시대로 틀을 바꾸자’는 창간 기획과 설문조사로 1면을 꾸몄다.

노후준비가 안 된 상태다.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지 못한 노인들은 아프고, 외롭고, 돈 없는 삼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인생 2막이 필요한 이유다.

‘인생 2막’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

일간지 중도일보를 소유한 김원식 부원 건설 회장이다. 발행인 겸 대표이사는 김 회장의 아들 김현수씨. 편집인 겸 사장은 최희봉씨. 국민일보 창간 요원으로 아시아투데이 편집국장 겸 총괄 전

무이사 등을 지냈다. 신문사는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회관. 하루 28면 전면 컬러로 중앙일보(구형 대판)에서 인쇄한다. 주 타깃 독자는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다. 100세 시대 ‘장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인생 2막으로 옮겨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발행 취지다.

## 콘텐츠는 ‘VIVA 100’

필자는 창간 사설에서 ‘브릿지경제는 차별화 된 콘텐츠와 100세 시대 동반자로서 행복으로 가는 은퇴생활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후반기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다. 은퇴 이후가 활기차고 행복해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브릿지경제가 추구하는 ‘VIVA 100’은 ‘정보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티다. 일과 돈, 건강과 힐링, 문화와 취미 등 독자들이 참여하여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앞으로 발족될 ‘VIVA 100 포럼’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주축으로 청년, 노년층을 아우르는 소통의 커뮤니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전문가, 지자체, 정부, 기업, 사회단체 등과 함께 새로운 100세 시대의 시스템 구축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취업·정년, 연금·복지와 개인의 재테크 등이 60세 은퇴에서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는 만큼 고령사회에 걸맞게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은퇴 후의 삶이 재앙 아닌 축복이 되려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노인의 가치와 역할이 인정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다. [E]

## 본회 6·25참전 언론인등 30여명

## 仁川상륙 전승기념행사 참석

1950년 6·25전쟁 당시 서울 수복의 결정적 계기가 된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9월 15일 인천광역시 월미도 행사장에서 열렸다.

대한언론인회 김은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6·25 참전언론인등 30여명도 초청된 이날 전승기념식에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 등 군 주요 지휘관, 장병 및 인천시 기관장과 참전용사, 시민·학생 등 2,200여 명이 참가했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해군·인천시가 공동 주관한 전승행사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 국

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승 기념식 직후에 재연된 해군 7기동전단장이 지휘하는 상륙기동부대가 한국전쟁 당시 전세를 역전시킨 계기가 된 인천상륙작전 시 최초 상륙지점인 월미도 해안에서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10여척과 상륙장갑차 20여대 등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재연했다.

인천상륙작전은 알려진 대로 미 육군 7사단과 미 해병대 1사단, 여기에 한국군 해병대 1개 연대와 백인엽 대령이 지휘하는 육군 17연대가 참여하여 성공한 작전이다.

# 국회 선진화법개정 한목소리 촉구

4월16일 세월호 침몰 이후 국회는 다섯 달 동안 국정조사 단 한건을 빼곤 법안처리 0건의 무능을 보여주었다. 야당은 “세월호가 민생이다. 민생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며 다른 법안 심의를 일체 거부한 채 대정부공격에 올인했다. 무기는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선진화’ 조항이다. 상임위 의결도 5분의 3, 본회의도 5분의 3이라는 다수결을 저버린 위험적 조항들 때문이다. 많은 신문이 국회법을 핵심 문제로 보고 개정을 역설했지만 방관적 주장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9월18일 사설 ‘또 선진화법 탓하는 與, 정국 풀기 위해 뭘 했나’에서 “야당이 소수파인 자신을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오용·남용함으로써 선진화법을 국회 파행의 주범으로 몰아간 셈”이라면서도 “정부·여당은 선진화법을 탓하기에 앞서 그동안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맞다. 야당이 선진화법을 방패 삼아 계속 민생을 발목 잡는다면 국민이 먼저 나서 그 법의 개폐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양비론을 펼쳤다. 조선은 “선진화법 시행 후 첫해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676건으로 노무현 정부 첫해나 이명박 정부 첫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고 선진화법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줬다. 허나 국회의 효용성을 입법량으로만 잴 수 없다.

어느 네티즌은 “이념 문제와 무관한 법안,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관련 없는 단순 법안은 예부터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 이런 법안을 수천, 수만 건 처리한들 그것으로 선진화법의 효용을 논할 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려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꼼짝 못하고 있는 사례를 놓고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따져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외침에 대한 선전포고도 국회가 승인을 구물덜지 모른다. 조선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의결한 북한인권법 같은 중요 사안이 야당의 고질적인 반대로 10년째 표류중인 사실에 눈감았다. 다수 여론도 야당은 장외투쟁을 그만 하고 국회로 돌아가라고 했다. 국회법 개정을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방증이다. 국회를 해산하자는 소리가 높

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작년 11월 국회해산론을 펼친 이래 9월엔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가세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세비를 반납해야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다.

경향은 사설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야당 겁박’이라고 비판했고 박범계 새민련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을 손톱 밑의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세비 반납 발언”이라며 ‘노위크 노페이’의 일반론에 과격하게 반응했다. 조선은 3월24일 사설 ‘야당이 국회선진화법 악용하면 그 결말이 뭐겠나’에서 “국민은 야당에 40%를 갖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면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후진화법’으로 불러야 한다. 2012년 당시 국회부의장으로서 국회선진화법이 초래할 ‘식물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 의장이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도록 하는 일에 누구보다 정 의장이 앞장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 ‘내 임기 중 개정은 없다’는 국회의장의 무책임을 준엄하게 경고한 것이다.

중앙은 24일 박명호 교수의 ‘식물국회 막으려면 국회선진화법 고쳐야’라는

안을 만들었지만 두 차례나 당내 강경파에게 거부되었다. 오죽하면 탈당까지 들먹였을까.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식으로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의 대어합의를 깔아뭉개 야당 내 의사결정 절차가 어떻게 민주적인지 신문들의 비판이 부족했다.

## 선진화법은 야당 독재

국회선진화법은 의사결정비용의 증가를 무시하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물국회’의 파행적 국회행태만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야당 독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정치에 100퍼센트 만족은 없으므로 생긴 것이 다수결이다. 소수 의견만 존중되어야 한다면 국회의원도 당선자와 낙선자가 교대로 해야 될 것이다. 국민들이 왜 굳이 투표를 해서 다수당을 만드나? 다수당은 국민들이 비전을 공유하려고 선택한다.

다수당이 헌정과 체제 수호를 위해 양보 못할 사안마저 ‘화백주의’로 가려는 이상한 정치에 대한 신문들의 질타가 부족했다. 전기톱과 망치, 최루가스가 난무한 국회의 동물적 육탄전은 국회의원이나 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끝난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라는 미명으로 포장한 국회법 개정을 여당은 한치 앞을 못 보고 환호작약했지만 ‘돌아갈 다리를 불살라버린 법’이라는 현실에 놀라 작년부터 헌법재판소를 들먹이지만 실행은 못하고 있다. 여당보다 먼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8일 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태훈 상임대표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 무너지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다. 선진화법 곳곳의 ‘5분의 3’ 조항은 헌법 49조의 ‘과반수 의결’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신문들은 더 기다릴 것 없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국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큰 목소리가 부족했다. 잘못을 알았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고치라고 요구해야 언론의 정도다. 이상에 치우쳐 선진화법에 부화뇌동한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한심한 특권 무능 국회를 해산할 규정도 없다는 무력한 현실에서 국민들은 2,000만의 국민서명으로 해산시키자며 울분을 달라고 있다. [4]

## “국회의장은 침묵 말고 앞장서라” 주장 여야합의 깔아뭉개 야당비판은 부족

는 의석만 주었는데 야당은 50% 이상 의석을 가진 것처럼 모든 안건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나온 권력이다”고 비판하면서 야당의 절제와 지혜를 촉구했다. 지금 절제가 부족한 야당의 지지도는 최저치로 악화되었다.

### 세월호·민생법안 분리 촉구

조선과 달리 동아일보는 9월3일 사설 “정의와 의장, 문제 많았던 ‘국회후진화법’ 이대로 둘 건가”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66.8%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민생 법안이라며 다른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반 토막 난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을 보면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동아는 “국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

기고를 실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5분의 3 의결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기대한 여야 간 타협과 절충 그리고 안건의 신속처리가 가능하려면 의원들의 교차투표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세계일보의 이미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괴물로 만든 여야의 무능과 무책임’ 사설에서 “다수결은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이지만 선진화법에선 무용지물이다. 야당이 악용하기로 작심하면 선진화법은 소수당 지배법이 된다. 선진화법은 여당만의 숙제가 아니다. 여야가 정권교체를 하면 야당의 문제가 된다. 민주당이 역지사지해 개정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라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의 무력화에는 야당의 계파주의도 작용했다. 중도 성향의 박영선 새민련 원내대표는 세월호에 대한 여야합의

### 재난 취재 보도 준칙 선포

언론단체들이 재난 발생시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기준을 담은 준칙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보도준칙’을 선포했다. 개별 언론사나 단체가 아니라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재난보도준칙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5개 단체 외에 10개 단체가 동참하면서 이날부터 총 15개 언론단체가 재난보도준칙을 실천하기로 했다. 향후 재난보도준칙 제정에 참여했거나 동의한 언론사가 이를 어길 경우 각 사가 속한 심의기구의 제재를 받게 된다. 재난보

도준칙은 전문과 3개 장(章), 부칙으로 구성됐다.

조문(條文)은 일반 준칙,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업체 구성, 언론사의 의무 등 44개로 구성됐다. 내용은 재난보도의 우선가치를 신속성보다 정확성에 중점을 두었다.

### 제 41회 한국방송대상에 정도전

제51회 ‘방송의 날’ (9월 3일)을 맞아 한국방송협회는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제 41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대상은 정도전, 작품상 부문에선

KBS ‘시사기획 창’의 ‘고위 공직자 재취업 보고서’ 등 모두 29편이, 개인상 부문에선 KBS 대하드라마 ‘정도전’의 정현민 작가 등 모두 21명이 상을 받았다.

### KBS 이인호 이사장 취임



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선출됐다.

### 한국편집기자협회창립 50주년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박문홍) 50주년 기념식이 9월 29일 오전 9시 웨스틴 조선호텔그랜드볼룸에서 ‘미디어의 Digital Transition과 Future Journalism’을 주제로 열렸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토론회

관훈클럽은 10월 2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관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7월 16일 취임한 이후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리며 과감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논점을 제공해 왔다.

# “~같다” 표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방송은 공기와도 같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매일 방송에 젖어서 산다. 그러니 방송은 국민들에게 국어 선생과도 같다. 방송은 국민들의 언어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기들은 TV를 보며 말을 배운다. 외국인들도 방송을 통해 한국말을 익힌다. 방송에서 쓰이는 말은 유행어가 된다.

방송에서 쓰는 말은 표준 한국어 같은 인상을 준다. 아니 표준 한국어라야 한다. BBC 영어가 표준 영국어이듯이... NHK 아나운서의 발음이 표준 일본어이듯이...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

## 정확한 표현 거의 사라져

요즘 방송에서 가장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가 ‘너무’와 ‘같다’가 아닌가 한다. ‘너무’란 ‘정도에 지나치게’란 뜻의 부사어이다. 그런데 ‘매우’ ‘무척’이란 말을 써야 할 곳이 대부분 ‘너무’로 바뀌고 있다. 하도 ‘너무’를 너무 쓰니 인터뷰이가 ‘너무’라고 말해도 자막은 ‘매우’로 넣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는 인터뷰이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 경우이겠다. 그런데 매우 드물게 인터뷰이가 ‘매우’라고 매우 정확하게 발음하는데도 자막을 ‘너무’로 넣는 것도 보았다. 이것은 자막을 뽑는 사람이 ‘너무’를 ‘매우’와 같은 뜻으로 알고 있거나 ‘매우’는 틀리고 ‘너무’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겠다.

한국어에 서투른 외국인이 출연해 ‘매우’를 써야 할 곳에 ‘너무’를 쓰고 있었다. ‘너무 예뻐요’ ‘너무 미안해요’라는 식으로...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은 ‘매우’나 ‘무척’같은 부사어는 없는 것으로 알지 모르겠다. 영어에서는 ‘very’와 ‘too’를 분명히 구별하면서 말이다.

고아로 거지처럼 자라 노동을 하며 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성악가가 된 감동 스토리를 전한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사례 발표를 하고 평가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심사를 맡았던 유명 연예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씨, 너무 안타주고 싶어요”라는게 아닌가? 너무 안고 어찌겠다는 것인지, 프로그램의

감동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같다’는 다른 것과 비교, 비유하여 ‘비슷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형용사이다. ‘셋별 같은 눈’ ‘마치 꿈속 같다’ ‘귀신같은 얼굴’ ‘고래등 같은 집’ ‘한 폭의 그림 같다’처럼 쓰인다. 또는 추측이나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비가 올 것 같다’ ‘무슨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식으로 쓰인다.

그런데 오늘 당장 방송 인터뷰들을 보라. 거의 대부분 ‘같다’로 답한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이 꽃이 어떠세요?’ ‘예쁜 것 같아요.’ 도대체 자기 느낌이나 의

방송시평



유자효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SBS 아나운서가 되고 그 프로그램을 맡게 됐다고 한다. 자신은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MC가 다시 김학래 씨 부부로 바뀌자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가 다시 방송에 등장해 계속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 프로그램은 사라졌는데 그 말이 선거방송으로 옮겨가

개표 방송 때마다 진행자들이 ‘아무개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진행자가 하는 표현은 별다른 의심 없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 ‘무척’ ‘매우’ 해야 할때 ‘너무’ 사용 잘못된 말 바로잡는 역할 아쉬워

견이 없다. 한국인들에게는 모든 사물이 비슷하지만 할 뿐 분명한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잘못 쓰여지고 있는 말을 잡아주는 역할을 방송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건데 잡아주기는커녕 무방비 상태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1등을 달리고 있다” 외쳐

SBS의 박상도 아나운서가 인터넷 칼럼에서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1991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는 SBS에서 첫 방송이 나간 <알뜰살림 장만 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김학래 임미숙 부부가 MC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개 주부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는 것이다. 1등을 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든지 ‘현재 1등입니다’로 쓰

다.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대중의 머리에 총알처럼 박히게 된 것이다. 개그맨들은 유행어를 만드는 것이 소원이니 어쩌면 김학래 씨는 막강한 유행어 하나를 탄생시킨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정달호 전 이집트 대사는 방송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들을 몇 가지 지적했다. 우선 남을 용납할만한 도량을 뜻하는 ‘금도(襟度)’가 ‘금도를 넘어서는 행동이다’처럼 틀리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호도(糊塗)’가 ‘오도(誤導)’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도 지적했다.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여론 자체를 호도할 수는 없을 터인데 여론을 호도한다는 말이 흔히 쓰인다. 관용어구인 옥석구분(玉

石俱焚)은 옥과 돌이 모두 불에 탄다는 것으로 선과 악이 구별 없이 함께 멸망한다는 뜻인데 옥과 돌을 구분(區分)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정 대사는 과격한 방송 용어의 사용도 경계했는데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세금을 ‘혈세(血稅)’라 표현하는 것과 ‘끝장토론’이란 말도 담론을 과격하게 끌어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이란 말도 ‘인간 발전’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 대사는 또 영어권에서는 최고위직을 정상(summit)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며 지도자(leader)가 민주 사회에서 적합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밖에 관(官)피아를 비롯한 무슨 ‘피아(mafia의 준말)’의 무차별 사용도 경계했는데,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마구잡이로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마피아야 아닌 집단이 없는 자조적이고 체념적인 현상이 초래될 것임을 경계했다.

방송에서의 과격한 표현에 대해서는 YTN의 류희림 사이언스TV 본부장도 방송기자저널에서 지적했는데 그는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방송 뉴스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하기보다는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는 사례들을 들어 경각심을 주었다. ‘먹구름’ ‘망연자실’ ‘진통’ ‘약발이 안듣는’ ‘총력전’ (KBS), ‘패닉’ ‘한숨’ ‘줄도산’ ‘직격탄’ ‘휘청’ (SBS), ‘초비상’ ‘빅뱅’ ‘경색’ ‘수혈’ ‘전방위 지원’ (YTN) 같은 표현들은 경제 위기를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설명해 불안감을 고조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이를 생존을 위해서 ‘아군’과 ‘적군’이 생명을 담보로 싸움을 벌이는 전쟁 상황을 전제로 보도함으로써 극단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쓰는 말은 국격을 나타낸다. 방송은 국어의 선생이다. 우리 방송들이 언어 사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쏟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국문]

## 12월 11일 송년모임

경향신문 사우회(회장 김명수·본회 회우)는 지난 9월 1일자로 회보 24호(타블로이드 24면 컬러판)를 발행했다. ‘아는가! 정협지에 열광’을 1면 머리기사로 시작된 이번호는 석천 오종식 전 편집국장(8·9면), 조은희 서초구청장(18·19면) 관련 기사가 돋보인다. 3면엔 지난 6월 27일 정기총회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당대 인기 시리즈로 김광주의 ‘정협지’, ‘잊을 수 없는 경향인 최치환 사장’, 최서영 본회 자문역의장의 신간 ‘메모수첩 속 세월의 단상’도 소개돼 있다. 12·13면의 선후배 문화부장 대담(본회 박석홍 편집위원과 현 한운정 문화부장), 미당 서정주와 경향문단(안건혁 본회 회우 집필), 김경래 전 경향 편

## 사우회 소식

집국장(본회 원로회우)의 특종 비화, 경향 여기자와 결혼 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 김성묘 본회 회우의 ‘설록함을 만나고 왔다’ 등 많은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경향사우회는 12월 11일(목요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에서 송년모임을 갖는다.

## 12월 10일 송년모임

서울신문

서울신문 사우회(회장 김문진·본회 부회장)는 지난 9월 1일자로 사우회보 27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8면 컬러판으로 나온 이번호는 ‘옛 서울신문 사람들 8명

이 아시아투데이에서 뭉쳤다’는 기사를 머리기사로 하여 12월 10일 송년의 밤 행사(프레스센터 20층)에고 기사와 안병준 본회 회우의 제언, 서울신문 창간 110주년 기념식 소식, 다양한 동우회 소식 등을 실었다.

최광일 본회회우도 3면에 ‘만남과 헤어짐의 함수관계’란 글을 기고했고 본회 김성묘 회우의 부군인 김명서 전 서울신문 상무이사 7년전 서울신문사우회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안병준 본회 회우의 글이 돋보인다.

특히 회원동정 난에는 김은구 회장이 3군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 기사

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 동호회모임 운영 활발

CBS

CBS사우회(회장 조준택)는 지난 9월 1일자로 사우회보 24호를 발행했다.

천안함 피격 4주기를 맞아 회원들이 안보투어를 다녀온 소식을 머리기사로 해 나온 이번호에는 이재천 CBS사장이 세계한인기독교방송인 회장에 선임됐다는 소식과 이정식 전 CBS사장의 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취임 소식이 눈길을 끈다. CBS사우회는 특히 사진, 나들이, 당구, 등산, 낚시, 바둑 등 동호회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 인생 2막

蘇在必 TRAVEL PRESS 발행인겸 회장 · 전 코리아타임스 편집인

인터뷰 : 최명우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사진 : 이철영 (본보 편집위원)

인생 2막은 인생을 단막극으로 마감하지 않은 이들의 보다 드라마틱한 삶의 이야기다. 드라마는 인생이 아니다. 인생의 갈등을 그리는 예술을 말한다. 그러나 더러는 인생을 드라마 보다 더 극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 PATA종신회원으로 선정 돼

지난 2009년 4월 17일 마카오에서 개최된 제58차 PATA 총회에서 'PATA 종신회원(PATA Life Member Award)'으로 선정된 국제관광업계의 대부 소재필 회우(77·전 Korea Times 기자)야말로 지금 인생 제2막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금까지 PATA 종신회원으로 선정된 한국인은 1965년 서울에서 개최된 PATA 연차총회 의장이던 오재경 당시 국제관광공사 총재와 고 오세중 세방여행 회장 그리고 소 회우를 합쳐 단 3명 뿐이다.

PATA(Pacific Area Travel Association)는 아태지역 관광인들의 제창에 의해 1951년 하와이에서 창설됐으며 국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 세계 73개국의 정부관광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합동 국제기구다. 아태관광협회로 불리기도 한다. 한 협회 내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협력관계를 창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정부·지자체의 관광사무소·항공사·크루즈사·공항·호텔·여행사·리조트·홍보기관·언론사·조사연구기관·관광지개발회사·경영컨설팅회사·교육훈련기관 등 매우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한국관광공사가 정부회원으로 이 기구에 정식 가입했다.

소 회우는 국제관광 무대에서의 활동상이 크게 돋보여 '한국 여행산업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힌다. 소 회우가 아주 큰 여행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내년 창간 35주 행사 준비

소 회우의 현직은 여행사 대표가 아니라 한국 최초의 관광업계 전문지 'TRAVEL PRESS'의 발행인 겸 회장이다. 산하의 여러 관광전문지를 함께 발행하고 있기도 하다. 소 회우가 'TRAVEL PRESS'를 창간한 것이 1980년이다. 올해로 벌써 34년, 내년에 35주년 창간기념행사를 크게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소 회우는 'TRAVEL PRESS'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오래된 국제관광 박람회(KOTFA)의 공식 일간신문을 1986년부터 현재까지 28년째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 이 신문은 국·영문 혼용 타블로이드 24~32면으로 조간으로 발행된다.

소 회우는 자신이 만든 회심의 'TRAVEL PRESS'를 손에 들고 세계로 댕다. 그는 관광업계의 여러 직책을 겸하고 있는 국제관광인이지만 이 'TRAVEL PRESS'를 세계에 전파하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애국자라는 인식을 갖고 관광산업 진흥에 매달리고 있는 소재필 회우.

## 2002년 5,800여명 한꺼번에 美國비자 받아내 하와이 80년 'TRAVEL PRESS' 창간 ... 관광언론인 장학재단

이유는 여기에 바로 자랑스런 한국의 모습이 자상하고 아름답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소 회우가 자신의 인생에 자긍심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가 스스로 애국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이 홍보대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항상 실감한다고 했다.

## 하와이대학서 관광산업 공부

“일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 보람있는 일이란 걸 깨닫는 순간 힘이 납니다. 애국한다는 정신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사가 늘 닥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한국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만약 소 회우의 인생2막을 3D로 본다면 제법 그 튀어나오는 맛이 있을 것이다. 소 회우에게는 낭만적인 모험심이 가득하다. 이런 적극성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런 자리에 추천될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소 회우의 인생1막이 낭만적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면 그 2막은 1막과 동떨어진 현실주의로 전환된다. 2막엔 미스터 하와이로 등장한다.

-왜 Mr. 하와이로 불리는지...

“하와이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셈이지요.”

소 회우가 하와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73년 하와이로 유학을 가면서부터다. 그곳 하와이 대학에서 6개월간 관광산업 경영학 과정을 이수하면서 세계적 관광석학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게 됐다. 좋은 친구도 만났다. 결심은 그로부터 한 참 후에 맺어졌다. 1990년 하와이 관광청이 한국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인물을 찾던 중 소재필을 떠올리고 그를 한국사무소장으로 발탁한 것이다.

소 회우는 2005년까지 15년간 하와이 관광청 한국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동안 3가지 빅히트를 치는 행운을 잡았다. 마치 무용담 같다. 그 하나가 암웨이 인센티브 행사 여행자 5,800명을 한꺼



蘇회우가 발행하는 Travel Press와 KOTFA Daily 표지

집부차장

원)

# 산업 대부



번에 하와이 관광객으로 만든 사건이다. 2002년 당시만 해도 미국비자 따기란 하늘의 별처럼 어렵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 그것도 근 6,000명의 비자를 한꺼번에 받아낸다는 것은 발상부터 기발하거나 혹은 발칙할 정도의 만용이라 할 만했다. 줄을 넣어 봤으나 허버트 주한 미대사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 없었다. 하와이 주지사의 등을 떠밀어 미국대사와 담판을 벌였다. 미국에선 정치적으로 주지사의 힘이 세다. 나중에 대통령이 될수도 있는 자리가 주지사이기 때문이다.

정말 기적적으로 5,800명의 미국비자가 발급됐다. 500명씩 끊어서 작업을 했는데도 미국 영사들이 이 때문에 애를 먹었다.

이 대인원을 국적기에 실어 하와이로 수송하는 것도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를 통해 하와이는 하와이대로 돈을 벌고 한국은 위상이 높아졌다. 호텔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푼과 포크를 실버웨어로 바꾸고 유리컵도 크리스탈로 대체했다. 한국관광객을 크게 우대한 것이다.

## KBS '열린음악회' 하와이 유치

2003년에는 KBS의 인기 프로그램 '열린음악회'를 하와이로 유치했다. 미

# 이 관광 시켜 만드는게 꿈



지.

국이 비자장벽을 높이면서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게 되자 하와이 신흥여행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소재필 회우였다. 'JP 소'라고 하면 하와이에서 무조건 통하는 이름이다. 지금은 더 더욱 그렇다.

능통한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을 홍보하는 영한 혼용 관광전문지를 몽치로 손에 들고 세계를 누비는 그에게는 정말 '갈 곳은 많고 지구는 좁다'는 말이 어울릴 듯싶다.

그러나 소재필 회우의 진짜 인생애기는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인생2막의 프리퀄(Prequel)이야 말로 진짜 반전이 있는 성장드라마이기 때문이다. 애당초 영자신문의 기자로 출발했고 지금은 정통 영어의 글로벌 신사로 통하고 있어 그의 영어실력이 어릴 적부터 뛰어났을 것이라 짐작되지만 알고 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18살 소년이 대망을 품고 무작정 대전에서 상경 길에 올랐지만 영어라곤 군부대 하우스보이 영어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였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영자신문 기자가 된 것일까.

대전역앞 중앙로에 만화가게가 있었다. 매일같이 '코주부' 김용환의 만화를 탐독하는 소년이 다름아닌 소재필이었다. 만화를 좋아했고 존경하는 김용환 화백처럼 그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다.

소년은 김용환 선생을 만나고자 서울로 갔다. 김용환 선생을 만나 덤석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제자가 되려고 왔습니다."

"어! 나 (제자가) 있는데..." 퇴짜였다. 그러나 열심은 열심의 결실을 맺는 법이다. 6개월간 꼬박 하루가 멀다하고 주변을 맴도는 그 지극정성이 꽤심해 선생은 마침내 그를 문하로 불러들였다.

김용환 선생이 영자지 'Korea Herald'에서 영어사설을 바탕으로 시사만화를 게재하고 있을 때 당시 '소군'은 말하자면 그의 조수역을 맡고 있었다. 직책은 편집부 기자였지만 맡아하는 일은 주로 선생의 만화를 나르는 것이었다. 이대로 잘 풀렸으면 그 때의 소군은 지금쯤 시사만화의 대가로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난다.

## 英字紙 기사로 영어공부

소군은 편집국 한 귀퉁이에서 영어사전과 영자신문을 펼쳐놓고 공부에 몰두했다. 대학도 직장에 있으면서 근무시간을 피해 2부대학을 다녔다. 서라벌 예술대학 공예과였다. 나중에 세종대 관광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마치고 하와이 유학길에 올랐지만 진정한 스승은 영어사전을 끼고 편집국 한구석에서 탐독한 영자지 기사였다.

김용환 선생이 일본의 미국동군사령부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기댈곳 없는 신세가 된 그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Korea Times의 이규현 편집국장이 그를 스카우트한 것이다. 이로써 만화와의 인연은 끊어지고 관광기자 소재필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그의 출입처이기도 했던 70년대 그때 반도호텔은 서울의 축소판이었다. 각국 대사관, 항공사, 여행사, 대기업 사무소 등등 굵직한 것들은 다모여 있었다. 여기서 그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관광안내지 'This Week in Tokyo'를 만났다. 그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에도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관광기자 소재필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This Week in Tokyo'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과감히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스스로 관광전문지 'TRAVEL PRESS'의 발행인이 됐다. 물론 발로 뛰는 기자도 겸했다. 그로부터 34년이 흐른 지금이다.

소 회우는 그동안 국제SKAL 한국회장, 한국관광언론인클럽 회장, 주한 외국관광청협회 회장 등 관광관계 주요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수많은 상을 탔다.

##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③

### 저용량 아스피린 암도 예방한다

해열진통과 심혈관질환 예방에 쓰이는 아스피린이 각종 암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보고가 속속 발표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최근 세계 종양(腫瘍) 전문학술지(Annals of Oncology)는 아스피린을 매일 저용량(100mg 이하) 복용할 때 대장암과 위암, 식도암 등 소화기계 암의 발생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런던대학 퀸 매리 암 예방센터(Center for Cancer Prevention at Queen Mary) 쿠직(Jack Kuzick)박사 팀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쿠직 박사는 그 동안 발표된 관련 학술논문을 재분석하여 이러한 결론을 얻었는데 아스피린을 10년간 복용한 경우 대장암은 발생률을 35%, 사망률을 40%, 위암과 식도암은 발생률을 30%, 사망률을 35~50% 정도 각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특히 50~65세 사이의 사람들이 매일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할 때 암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학술지 '폐암'(Lung Cancer)은 2012년 4월 아스피린이 폐암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국립싱가포르대학 림(Wei-Yen Lim)교수 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림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폐암 진단을 받은 여성 398명과 대조군 814명을 대상으로 아스피린 복용여부와 암 발생과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비흡연자인 경우 아스피린 복용자는 비



이광영

·본회 노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

복용자보다 폐암발생위험이 50% 낮았고, 흡연자인 경우에도 아스피린 복용자에서 폐암발생 위험이 무려 62%가 더 낮았다고 했다.

또 2010년 10월 미국 텍사스 사우스웨스턴 의과대학(University of Texas South-

western Medical School) 방사선 종양학과 초예(Kevin Choe) 박사 팀은 아스피린이 전이(轉移)가 없는 전립선암의 사망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전립선암 중에서도 특히 악성인 경우 그 사망위험이 더 낮았다고 했다.

그 동안 심혈관 전문의들의 아스피린에 대한 지침은 출혈 등 부작용 위험에 비해 심장병과 뇌졸중 사망 위험을 낮추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복용을 독려해 왔다. 전문가들은 아스피린이 각종 암을 예방하고 사망 위험까지 줄인다면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득에 비할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스피린은 저용량이라 해도 전문의의 처방을 통해 복용해야 한다.

아스피린이 어떻게 암 예방효과를 갖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아스피린이 암 세포 활성을 도와주는 혈장(platelet)의 양을 줄여 주고 항염증작용이 세포의 변이(變異)를 막아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프레스센터에 있는 외신기자클럽도 그의 손을 거쳐 거둔단 것이다. 수많은 상을 탔고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

## 관광인재 육성 제3막 준비

소 회우는 이제 인생3막을 준비 중이다. 그의 후속편에는 또 어떤 반전의 드라마가 엮여질지 사뭇 궁금하다. 짐작컨대 큰일을 한 번 더 칠 것 같은데 이번엔 관광전문기자를 양성하는 한국관광언론인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래의 관광산업을 짊어질 인재를 선발하는 것에서부터 교육 훈련까지 모두 장학사업으로 책임을 지려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우선 1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해 미국 및 일본에 있는 세계 관광명문학교로 유학시킬 계획이다. 내 이름 석자보다도 한국이 세계적인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주춧돌이 될 관광언론을 육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소신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관광산업은 국가전략사업이다. 외화

획득뿐 아니라 성장한 한국, 성공한 한국의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국가 홍보이자 또한 고용창출의 수단이기도 하다.

"데모만 하면 뭐합니까. 나라가 강해야지요. 그래야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여기서 열심히 뛰는 게 애국 아니겠습니까." 말도 빠르고 몸도 빠르다. 머리회전은 그 앞이다.

"아직도 기자촌에 사십니까?" 그를 아는 사람들이 묻는다. "네. 38년째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묻고 대답하기 결끄러운 질문과 대답이었지만 지금 소 회우는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그 환경이 열악하기로 악명높던 기자촌이 이제 은평뉴타운으로 대변신해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추었으니 하는 말이다.

어찌보면 소 회우는 인생의 열리어덱터이며 반전의 행운까지 타고난 모양이다. 늘 새로이 시도하기에 그에게는 '첫'이라는 한 글자가 따라다닌다. 'JP 소'의 또 있을 그 '첫' 얘기를 인생3막에서 들어보고 싶다.



## 회우들이 펴낸 신간

### 곽찬호 회우 ‘한국경제 발전시대’

곽찬호 원로회우가 ‘한국의 경제발전시대’란 책을 펴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신아일보(일간), 통일신문(주간), 경동신문(월 2회), 광진신문(월간)에 기고 또는 전재된 한국경제의 발전상에 대한 해설 기사를 모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이 책 발간사에서, “경제해설 기사 작성때는 항상 정확하고 바르게 작성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좋은 참고가 되고 역사자료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책 발간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1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창기부터 상공부 재무부 출입기자로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현장에서 생생히 체험 하면서 국내 일간 통신 신문 그리고 일본 신문에까지 한국경제의 약진시대를 본대로 느낀대로 기고해온 필자의 경제관이 투영되었다.

‘경제 민주화 통제-규제 보단 체질 강화로’ ‘제주에 밀려드는 중국발 투자바람’ (이상 신아일보), ‘우리나라 경제교역 우등생은 중국’ ‘개성공단 무풍지대 아니다’ (이상 통일신문), ‘박근혜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지름길’ ‘글로벌화 전환기의 한국경제’ ‘한국기업 중국투자 활성화’ (이상 경동신문),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실현계획’ (광진신문) 등 한국경제와 관련된 글들이 주목을 끈다.



책 후미엔 ‘곽찬호가 걸어온 발자취’와 곽찬호의 자화상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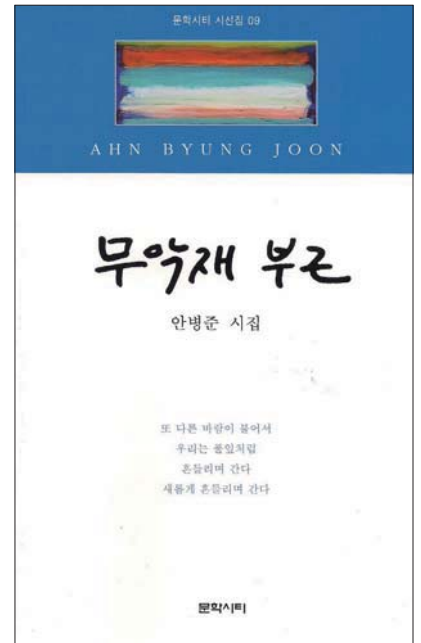


### 안병준 회우 시집 ‘무악재 부근’

안병준회우가 처녀시집을 냈다. 2012년 계간문예지 문학미디어(발행인 박명순) 시 부문 신인상을 받은 지 2년 만이다. 내일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안 회우는 대학시절 한때 시 수필을 썼으나, 각박한 신문기자 생활로 작품을 쓰지 못했다. 2년 전 대퇴골 골절로 입원수술을 받는 동안 시작을 다시 접화시켰다. 시집 1부는 서정 20여 수, 2부 일상 30여 수, 3부 시대상 30여 수, 4부 가족 30여 수 등 110여 편으로 돼있다.

여느 시집과 달리 저명 문학평론가의 시평 대신, 선배언론인 홍 의씨(전 한국일보·문화일보 기자)의 “안병준은 시인이 아니다”라는 글을 실었다. 홍 의씨는 “40여 년을 신문쟁이로 살아온 그가 시를 쓴다고 해서 의아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의 시를 읽으면서 일상을 보고, 우리들의 삶을 보며 시라는 것이 결코 신선놀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시집은 다만, 문학미디어 신인상 수상 당시 심사위원장인 문학평론가 민용태 시인(고려대 명예교수·스페인 왕립한림원 종신위원)의 심사평을 실었다. 민 교수는 “품격 높은 시 정신과 놀라운 발견의 눈을 갖고 시의 숲



으로 나온 안 시인을 환영한다”라고 언급했다.

안 회우는 대학시절 썼던 시에 대해, 작고한 조병화 시인이 “내일을 모색하며 차분히 흐르는 사색”이라는 평을 해준 사실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소설가인 여동생과 큰 손자가 그린 삽화 40여 점도 눈길을 끈다. (문학시터 발간·값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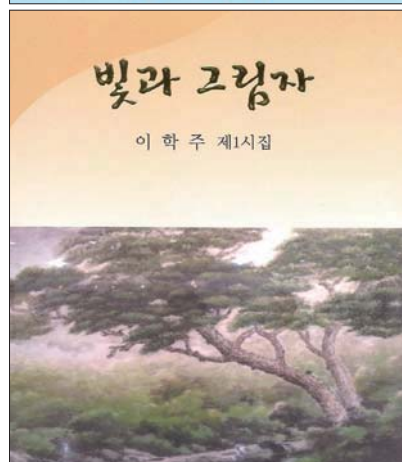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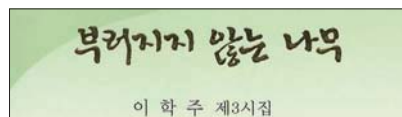
### 이학주 회우 제 1~3시집

이학주 원로회우가 3권의 시집을 동시에 출간했다.

제1시집 ‘빛과 그림자’에서 70편의 시, ‘한 방울 강물되어’ 제목의 제2시집에서 74편, 제3시집 ‘부러지지 않는 나무’에 74편 등 218편의 시를 한꺼번에 내놓는 놀라운 시心の 노익장을 보인것이다.

이회우의 시 가운데는 <말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천안함의 용사 46위의 영령들이여> <세월호참사의 고혼을 달랜다> <세월 잡으러 가세> <개가 짖는것은 직업이다> <신의 존재> <독도여 일어나라>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시> <시골버스> <시로 써본 가상소설> 등 2백여편을 선보이고 있다.

“내나이 傘壽고개를 넘었는데 어쭙 짚게시리 시를 쓴답시고 부산을 떨고 있다”며 “늦깎이가 법당에서 새벽염불하듯 내가 좋아 시를쓰고 내뱉을 삼는다”는 머리말을 올렸다. 이어 제2시집의 펴내는 말에서는 “시가 대중의 입맛에 맞춰야지 대중이 시에 맞추도록 길들일수 없지않은가” 라면서 난해한 시에대해 일갈을 하기도한다. 그러면서 제3시집에서는 “변변치못한 시집이지만 늙은이의 꺼지지않는 창작의욕에 격려의 박수를 받고싶다”고 했다.



1934년생인 이학주 회우는 79세때인 2012년 월간 한맥문학 시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자신의 말대로 ‘늦깎이의 작품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래서 “내가 詩力은 길지않으나 살아온 긴세월이 내게 시를 담는 그릇을 키워줬다”고 했다. (한맥문학 출판부 발행·값 각권 1만원)

### 최택만 회우 ‘한국의 대표급 경영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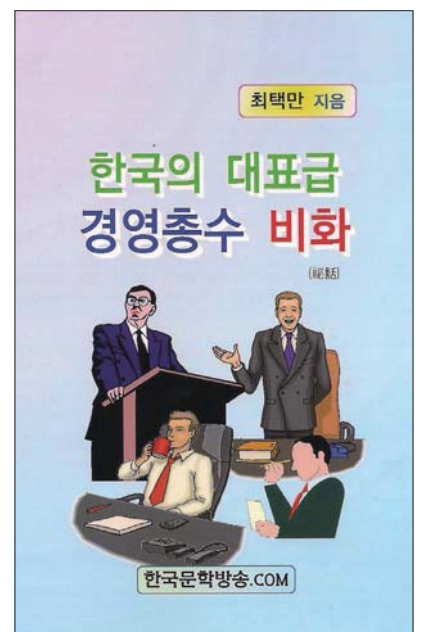
한국 재계의 양대 거목,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이야기를담은 ‘한국 대표급 경영총수 비화’를 최택만 회우(논설위원·전 서울신문 논설위원)가 책으로 펴냈다.

정 회장은 1971년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으로 부터 조선소 건설 차관을 얻기 위해 롱바텀 A&P애플도어 회장을 만났다. 그는 바지주머니에서 500원 짜리 지폐를 꺼내 그 돈에 인쇄된 거북선 그림을 롱바텀 회장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전인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

그의 말은 롱바텀 회장을 감동시켜 8,000만 달러의 해외차관을 얻어냈다 는 일화를 이 책은 소개하고 있다.

이병철 회장이 삼(三)자를 써서 삼성(三星)을 작명한데는 깊은 내력이 있다. 숫자 삼은 크고 많고 강한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 숫자 삼은 쓰러지지 않는 숫자로 인식하고 있는데서 착안한 것이다. 화로나 삼발이가 달려있는 모든 기구는 쓰러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일본의 양대기업 미쓰비시(三菱)와 미쓰이(三井)도 삼자를 쓰고 있다. 이 회장은 당대만을 보는 창업자는 아니다. 그는 항상 “창업보



다 수성(守成)이 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철강왕 박태준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관계도 실려 있다. 박 대통령은 온갖 청탁으로 시달리는 박태준 회장에게 ‘종이마패’를 써주었다. 이 종이 마패에는 “박태준을 괴롭히면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글이 적혀있다. (한국문학방송 간·값 1만원)

## 2014 대한언론상 수상자 결정

대한언론인회는 9월 26일 2014년도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윤진·황현택 기자(취재보도 부문)와 6·25참전언론인회 박기병 회장(특별공로)을 금년도 대한언론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11월 4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수상자 및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재보도

#### 윤진·황현택 KBS정치외교부 기자

2014년 4월 7일 육군 28사단 소속 윤 일병이 선임병에게 집단 폭행당해 숨진 사건을 최초 보도하여 군내 폭행 가혹행위성 범죄 등 우리 군의 악습과 폐단을 집중 취재, 고발 함으로써 군내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과 군 병영문화의 근본적 개혁에 기여했고 더 나아가 군 사법제도 개혁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4]



윤진 기자



황현택 기자

### 특별공로

#### 박기병 6·25참전 언론인회 회장

1958년 언론계에 투신, 정치부기자와 방송경영인 그리고 한국기자협회장,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발전기획위원장, 6·25참전언론인회 회장, 상담역 등을 역임하면서 자유언론 창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또한 언론계 현역에

서 물러난 뒤에는 일선 각 부대를 순회하며 안보강연을 통해 군 사기신장에 기여하는 한편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회 회장으로 6·25 전적지 답사등 ‘노병의 언론인’으로 국가 안보의식 재고에 크게 기여하였음. [4]



박기병 회장

## 심사후기

금년도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 모임은 지난 9월 12일, 17일, 26일 3차에 걸쳐 열렸다. 첫모임에서 심사위원들은 응모사항을 점검하고 곧바로 심사에 들어갔다. 금년도 대한언론상 심사기준일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 심사위는 이 기간 중에 있었던 주요 테마나 사건보도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찾고 일간신문 방송사의 보도 및 논평을 비교 검토했다.

9월 17일 오후 3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난상토론 끝에 KBS의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보도가 단연 압권이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수상후보자로 신청한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윤진, 황현택기자를 금년도 대한언론상 취재 보도부문 수상자로 잠정 결정했다.

9월 26일 3차 회의는 그간 검토



이형균

·본회 부회장

된 수상 후보자를 포함 최종 심의에 착수.

취재보도부문 수상자로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윤진, 황현택 기자를 최종 선정했다.

특별 공로상에는 6·25 참전언론인회 박기병 회장을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박기병 회장은 6·25 참전

언론인회 회장으로 6·25 전적지 답사.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출판, 6·25참전언론인 명패 헌액 등 대한언론인회의 위상 제고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4]

〈2014 대한언론상 심사위원〉

위원장 이형균(본회 부회장) 위원 : 김영환(본보 편집위원) 김진기(본회 논설위원) 윤기병(본회 상담역) 이태영(본회 상담역) 간사 정운중(본회 상임이사)

요즘 보건소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애연가들이 담배를 끊을수 있도록 돕고 있다. 40여년 전 담배를 끊은 나로서는 금석지감의 놀라움과 동시에 ‘우리 정부도 이제는 담배의 해독성에서 국민을 구해내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흐뭇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담뱃값을 올릴 때마다 금연을 결심하는 애연가들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담뱃값 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애국심’이 요동을 쳐서 담배를 끊었다.

애국심이 동해서 담배를 끊었다니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나는 1959년부터 판문점을 출입한 기자였다. 1970년대 초 ‘은하수’ 담배가 새로 나오기에 앞서 ‘청자’ 담배의 품귀현상을 전매청이 계획적으로 일으키고 있을 때였다.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예비회담이 열리던 날 나는 청자담배를 살 수가 없어서 ‘신탄진’ 담배를 남방셔츠 주머니에 꽂고 판문점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나와 최초로 마주친 북쪽기자가 악수를 청하며 한다는 소리가 “김 선생, 당신도 오늘 청자담배 한 갑 못 샀구려...”라며 히죽거리지 않는가.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시 우리의 라디오 방송들에서는 청자담배 품귀현상을 날마다 규탄하는 애연가의 소리를 내보내고 있었으니 개성에서 남한정세 교육을 받고 나오는 북쪽기자들이 청자 품귀문제로 대남공세를 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나는 억지웃음을 지으며 그에게 대구를 했다. “담배야 어차피 기호

품인데 청자대신 신탄진이면 어떨소!” 라고 하면서 신탄진을 꺼내서 그에게 한대를 권하고 나도 한대 피워 물었다.

그러나 이게 낭패였다. 그 북쪽기자가 내가 준 담배에 불을 붙이다말고 “김 선생! 당신네 담배가 왜 이렇소?” 라고 소리치며 그 담배를 나에게 내밀었다. 담배개비의 종이만 타고 나무뿌리 같은 것이 속에 박혀있어 피울 수가 없는 담배 오작품이 아닌가.

나는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야 할 지경이 되었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처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입을 열었다. “당신네가 또 우리 노동자들에게 사보타주하라고 지령을 내렸구나”라고.

이날 판문점에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나는 머릿속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담배는 사람에게 해로운 습관성 기호품인 까닭에 국가가 독점 판매하는 전매품인데 왜 이 꼴이란 말인가? 최초의 필터담배였던 ‘아리랑’을 그대로 두고 가격인상이나 할 것이지 악독상인의 독점판매품처럼 포장이나 바꾸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못된 버릇을 정부의 전매품도

## 나의 애국심 禁煙記



김 집

·본회 원로회우

·전 동양방송 사회부장

·전 KBS 전문위원

따라 하는가? 내 머릿속은 울분의 도가니가 되고 있었다.

회사(동양방송·TBC)에 돌아온 나는 이 날 담배 때문에 판문점에서 당한 분풀이를 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북쪽에서 당하고 남쪽에 와서 분풀이하는 꼴이지만 우리의 전매품담배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토요일에 나가는 10분짜리

필름 프로인 ‘카메라의 눈’을 자청해서 맡았다. 필름 촬영과 편집을 해야 하고 녹음을 따로 해서 화면에 맞춰야 하는 ‘카메라의 눈’ 프로는 당시 기자들이 맡기를 싫어하는 기피 프로였다.

나는 청자담배를 사지 못한 애연가들이 신탄진 불량 담배에 화를 내고 분통해하는 장면을 카메라와 녹음기로 취재를 하고 양담배 단속원과 육신각신하는 장면도 잡았다.

당시 양담배를 피우다가 전매청단속원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할 때인데 양담뱃값이 청자 담뱃값보다 오히려 싸게 살 수도 있었다. 그래서 ‘카메라의 눈’ 프로에서는 값싸고 맛 좋은 양담배를 애국심을 발휘해서 외면을 하고 비싼 청자담배를 피우던 애연가들인데 그 청

자담배의 품귀현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담배 한 가치 때문에 ‘애국심이 흔들릴 지경이다’ 고 쏘아댔다. ‘카메라의 눈’을 방영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憤은 좀 풀리는 것 같았다.

그 며칠 후 전매청공보관이 ‘내일부터 시판할 새 담배’라고 하며 은하수담배 보따리를 들고 방송보도국에 나타났다.

사회부데스크인 내 책상에도 한 보루 내려놓았다. 나는 그 담배 한대를 피워 물고 눈을 감았다. 60년대 최초의 필터담배였던 아리랑담배의 맛과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담배갑 포장이 과란색이어서 공보관에게 물었다. “박하를 넣은 담배도 아닌데 포장이 왜 과란색이냐?”고 했더니 “그 담배의 포장색깔과 값은 각자가 정했습니다”라는 대답이었다.

‘각자가 정했다’는 말에 화가 치밀었다. “당신네 전매청은 뭘 하기에 대통령이 담배갑 포장색깔까지 정해야 하냐?”고 고함을 지르며 은하수담배 보루를 내던졌다.

우리의 전매청 담배 때문에 판문점에서 당한 분통이 되살아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큰소리로 “이제부터 내가 담배를 피우면 X자식이다”고 선언했다.

이래서 40대 초반에 금연하여 80대 후반까지 살고 있는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나로 하여금 금연을 하도록 자극해 준 북쪽기자와 전매청공보관이 고마울 뿐이다. [4]

치매연구에 대해 세계적인 뇌과학자들이 주목하는 ‘넌 스티디(nun study)’는 글자 그대로 수녀(修女·nun)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연구다. 수도원(修道院)이라는 특수공동체에서 평생을 신앙과 세세하게 규정된 규범아래 살아가는 수녀들은 치매로부터 어떻게 뇌를 방어하는 것일까?

수도원에서 집단생활을 보내는 수녀들은 생활습관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거의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식사를 비롯해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도 전원이 동일한 특수 조건하에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질병이나 건강에 관한 원인과 증상을 직업, 수입, 식사, 음주나 직연과 같은 생활습관상의 외부 요인에 의해 헛갈리지 않고 가능한 한 엄밀하게 추적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대규모 추적조사일 경우 대단히 유리한 조건에 든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수녀들을 가능한 한 장기간에 걸쳐 조사 연구하면 수수께끼에 싸여있는 알츠하이머 형 치매의 발증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해명하고 기억장애나 ‘견당식(見當識·사물을 가늠하는 기능)’ 장애등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 낼 수 있을지 모른다.

1986년 봄 미국의 미네소타주 굿 카운셀 힐에 있는 노트르담 교육 수녀의 붉은 벽돌로 된 수도원을 어떤 남자가 찾아 왔다.

그 젊은 남자가 ‘넌 스티디’를 세상에 물은 데이비드 스노돈(David Snowdon ph. D)이다. 당시 그는 미네소타 대학의 역학(疫學)조교수였다. 뒷날 캔터키대학 교수가 된다. “데이비드 스노돈 교수가 ‘넌 스티디’의 성과를 마무리한 『우아한 늙음(Aging with Grace)』은 알츠하이머 형 치매 연구자 필독서(必讀書)가 되었으며 2004년에 일본에서 번역한 『100세의 이름다운 뇌—알츠하이머병 해명에 손을 내민 수녀들』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일본판은 이제 희귀본이 되어 네트 상으로 고가(高價)로 거래된다고 한다.

(보름 전 교보외서담당에게 부탁해서 원본(영문판)을 주문해 놓고 있는데 도착하면 힘들더라도 읽어 볼 참이다.)

수녀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신체조사, 지능테스트, 여러 가지 사항에 걸친 질문과 청취(聽取)를 순조롭게 진행하자면 피험자(被驗者·수녀)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스노돈 박사가 아무리 바란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이 ‘노’라고 한다면 일은 끝난다. 그러나 678명의 수녀들은 “시스터를 조사연구함으로써 나이와 질병의 중요한 실마리(단서)를 잡게 될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오래,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스노돈 박사의 말을 흔쾌히 수락하게 된다. 그렇게 하여 전에 볼 수 없었던 수녀들의 대규모 조사 ‘넌 스티디’가

##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12>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 치매차단 - 오는 것이 보이면 막을 수 있다 (下)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조사에 수녀들이 이의 없이 응한다하더라도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어려운 승낙 사항은 사후에 뇌를 부검(剖檢)할 수 있도록 헌뇌(獻腦)를 수락하는 일이다.

알츠하이머 형 치매의 경우 발증(發症)메커니즘과 진전 원인이 모조리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로 진단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죽은 뒤 뇌를 부검하지 않고는 확진(確診)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급’인 스테이지 제로에 해당하는 아름다운 뇌 였다고 한다.

시스터 로즈 뿐만 아니라 96세에서 100세까지 살다가 간 고령자의 뇌를 조사했더니 40%가 스테이지 제로로 분류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특히 심장 발작으로 죽은 시스터 바나데트의 뇌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분석한 결과 알츠하이머 형 치매의 징후를 넓은 범위에 걸쳐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알츠하이머 형 치매 중에서도 가장 위중한 상태

### ‘넌 스티디’에서 배우는 長壽腦만들기

그러므로 ‘넌 스티디’에서도 수녀들의 사후 뇌 검진이 불가결인데 이 점은 수녀들이 카톨릭 교도들이고 사후세계를 신앙으로 믿는 이상 시신(屍身) 훼손은 거부감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스노돈’ 박사의 열의에 찬 제의에 응한 수녀들의 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678명 전원이었다.

수녀들이 제공한 사후의 뇌는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밝히게 된다.

뇌 부검 결과 뇌속의 노인반(老人斑·검버섯)이나 신경원섬유(神經原纖維)변화가 나타나는 부위의 증가나 범위에 의해 치매상태는 가벼운 정도(輕度)로부터 차례로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6(VI)까지 6계단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넌 스티디’에서 사후의 시스터(수녀)의 뇌를 부검한 결과 스테이지 I과 II로 판별된 뇌 가운데 치매로 보이는 것은 22%, 스테이지 III과 IV에서 43%, 스테이지 V와 VI에서 70%에 달했다.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치매율이 높아졌으므로 뇌 속의 노인반이나 신경원섬유 변화의 축적과 치매의 진행이 이어져 있는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이를테면 생전에 치매 증상이 전혀 없고 정신검사에서 언제나 고득점을 유지했던 시스터 로즈는 100세까지 살았는데 신경원섬유변화가 몇 군데 발견되었으나 분류상으로는 ‘최상

인 스테이지 VI의 진단이 내려졌고 시스터 바나데트는 인격조차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으로 보였으나 생전에 추호도 치매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건전한 수녀였다고 한다.

‘넌 스티디’를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이러한 과학을 넘어서는 ‘기적’에 있는 것인가? 스노돈 박사는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에는, 가령 어느 부위가 노인반이나 신경원섬유 변화로 상처 났더라도 뇌의 다른 부위로 대체하는 기능이 예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스노돈 박사는 ‘브레인 리저브(Brain reserve·뇌 보존) 가설(假說)이라 하고있다. 또 한가지 뇌의 신경세포의 일부가 노화나 질병으로 죽어버리더라도 남은 신경 세포를 자극함으로써 뇌 속의 신경 네트워크를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어 일부의 신경세포가 사멸한 손상을 최소한도로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코그니티브 리저브(Cognitive reserve·인지적 예비력)라고 하는데 이 가설을 발전시키면 처음부터 뇌속의 신경네트워크를 넉넉하게 해두면 어느 정도의 손상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넌 스티디’가 뇌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도원이라는 특수한 공동체에 속하는 수녀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어느 사람이 따라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넌 스티디’에서 밝혀진 몇 가지 수용하기 쉬운 사항을 짚고 넘어 가는 게 낫겠다.

스노돈 박사가 제창(提唱)하는 ‘뇌의 기초체력’을 지니자면 첫째가 ‘두뇌력(頭腦力)’이다. 두뇌력에는 학력도 포함된다. 치매예방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많은 치매연구가 지적하고 있다. 인지기능이 쇠퇴하는 최대의 리스크는 낮은 두뇌력이다.

어릴때 부터 독서 등으로 머리를 쓰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치매 예방에는 늘 두뇌를 써야 된다는 것이다. 치매의 리스크 팩트에는 학력이 있지만 신경세포의 수에 학력은 관계없다. 생애를 통하여 지적활동을 통한 뇌속의 신경세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성(社會性)은 대단히 중요한 팩트다. 사회와 단절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리코펜(Lycopene)의 혈중 농도다. ‘넌 스티디’에선 농도가 낮을수록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넌 스티디’에서 혈액 샘플을 제공한 시스터들의 6년 뒤의 생존상태를 조사한 결과 혈중 리코펜 농도가 높았던 시스터의 70%가 생존해 있었으나 낮았던 시스터의 생존율은 13%에 불과했다고 한다. 리코펜은 토마토나 수박의 붉은 색소에 들어 있다. 딸기에는 없다. 리코펜은 몸속에서 생성할 수가 없으므로 자연형태로 야채나 과일에서 섭취할 필요가 있다.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하기 쉽다. 이 대목은 필자에게 반가운 정보다.

나는 토마토를 1년 365일 중 300일은 먹는다. 그리고 미국 GNC사(社)의 Lycopene 30mg정(錠)을 하루에 두 번 어김 없이 복용하고 있다. 리코펜은 항산화(抗酸化)물질인데다 심장혈관 건강을 돕는 성분이다. 리코펜은 내가 보장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치매를 예방하는데 달걀과 비타민 B12가 있다. 이걸 ‘넌 스티디’에 나오는 정보가 아니다. 일본의 저명한 신경과학자가 7년에 걸친 동물실험으로 밝혀낸다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늘어나게 했다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형 치매는 확정적인 원인은 덜 밝혀졌다고 하지만 아세틸콜린의 격감이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아세틸콜린은 중추신경계에 확보되어 있어야 할 신경전달물질이다. 치매증후군의 환자에게는 아세틸콜린의 결핍이 보여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세틸콜린 산출(產出) 촉매로 작용하는 효소인 콜린아세틸트랜스페라제의 결핍도 관여하고 있다.

달걀 노른자 속의 콜린(Choline)과 비타민 B12가 만나서 아세틸콜린이 된다는데 콩에서 추출한 레시틴(Lecithine)에는 달걀 노른자 보다 많은 콜린이 들어 있으므로 레시틴과 비타민 B12를 복용하는게 장수뇌(長壽腦)만드는데 더 좋을 것이다. [4]



# 세계 농어촌의 행복 동반자

농어촌 개발 전문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농지·물 관리 노하우로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세계 농어촌 만들기. 나눔·봉사·배려의 정신으로 '세계농어촌공사'가 함께 합니다.



[탄자니아] 도도마 식수개발사업



[미얀마] 농업기술지원



[에티오피아] 농업용수개발

#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7박 8일

말타고 산천 구경한 꼴이지만 촌사람이 난생 처음 10만톤급 유람선을 타고 느낀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여행기 치고는 많이 부실하지만 이런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

8월의 일요일 오후 4시에 시애틀항을 떠난 ‘노르웨이저안 펄’ (Norwegian Pearl)호는 46시간 항해 끝에 알래스카 주도 ‘주노’ (Juneau)항에 닿을 내렸다. 꼬박 이틀을 쉬임없이 달려온 것이다. 그 때가 화요일 오후 2시였으니까 정말 긴 항해였다. 처음 배를 탈 때는 멀미를 걱정했으나 위낙 몸집이 커서 그런지 마치 호텔방에 머무는 기분이었다.

주노라고는 하지만 ‘주노’는 상주인구가 고작 3만 2,000명정도인 작은 도시. 그러나 크루즈선에서 쏟아놓는 관광객들로 거리는 인파로 북적거렸다. 거리에는 관광 상품을 파는 가게와 보석상들이 줄지어 있을 뿐 음식점이나 커피숍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배에서 서둘러 점심을 먹고 하선한 우리 일행은 고래 떼를 보기 위해 작은 쾌속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기로 했다.

육지에 내려서 하는 구경은 각자가 별도로 경비를 부담하는 이른바 옵션. 배에서 예약하면 비싸다는 정보를 알고 있기에 내려서 흥정했더니 고래 보기와 연어보기 두 가지에 한 사람당 110달러. 배에서는 240달러를 달라 했으니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다.

고래를 보려면 버스로 20분이상 달려 작은 포구에서 기다리는 쾌속선을 타고 40분정도 바다로 나가야 한다. 고래 떼가 노는 바다에는 벌써 여러 척의 배가 고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운이 좋은지 배가 이르자마자 고래가 물기둥을 뿜으며 떼거리로 나타났다. 어떤 놈은 머리를 내밀고 다른 놈은 꼬리를 솟구치는 묘기를 보여주었다. 더러 외톨이로 노는 고래도 있었다.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 형편이 아니어서 우리는 아쉬움을 안은 채 뱃머리를 돌려 버스로 갈아타고 연어가 있는 힘을 다해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어떤 놈은 지쳤는지 흐느적거리기도 했다. 긴 여행을 끝낸 연어는 알을 낳고는 생을 마감한다니 그 회귀 본능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미처 흥분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다음 항해를 위해 우리는 배로 돌아와야 했다. 배가 오후 9시 30분에 떠나기로 되어있어 우리는 7시 30분에 배에 올라 포도주를 곁들인 만찬을 즐기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 배에는 정식당 뷔페 스낵카페 등 13종류의 식당이 있어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 특별히 돈을 내는 식당도 있으나 대부분의 식당은 여행경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무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다. 배안에서는 현금을 쓸 수 없고 모든 결제는 승선할 때 회사에서 내준 개인 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카드는 객실에 출입할 때, 승선과 하선을 할 때, 배 안에서 결제를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살 때 모두 통용된다.

**류철희** (본회 회우·전 대한일보 서울신문기자·전 제주 충남부지사)



주노항 앞바다에서 뛰노는 고래(위) 구경에 나선 일행. 오른쪽 끝이 필자.

두번 째 기항지 ‘스캐그웨이’ (Skagway)에는 수요일 새벽 6시에 닿았다. 항구에는 3척의 다른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었다. 인구가 1,000명정도인 이 도시에 한꺼번에 10,000명 가까운 관광객과 선원들이 북적거리니 과연 관광지다웠다. 그 옛날 ‘골드 러시’를 회상케하는 흔적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어 볼거리는 꽤 많았다.

우리는 금을 캐며 흥청대던 광산지대를 도는 왕복 3시간짜리 기차여행을 하기로 했다. 말이 기차이지 골짜기에서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는 시속 20km 정도의 협궤열차. 철로 주변의 나무숲, 이름 모를 야생화, 폭포, 캐넌 광석을 나르던 철로의 잔해 등이 눈길을 끌었다. 고작 해발 873m라는 표지를 보았는데 등성이 곳곳에 녹지 않은 눈이 쌓여 있고 날씨도 꽤 싸늘했다. 시내에서 15달러 주고 산 반조끼 덕을 톡톡히 봤다. 산꼭대기는 캐나다와 국경이 맞닿아 있었는데 분지에는 꽤 넓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물은 아주 맑았지만 물고기는 눈에 띄지 않았다. 관광 안내서를 보니 추울 때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8월인데도 녹지 않은 눈이 산등성이에 쌓여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듯하다.

다음 날 목요일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배는 이미 ‘글레시어 베이’ (Glacier bay)에 들어서고 있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양쪽 얼음언덕을 구경하는 일정. 바다는 잔잔하고 하늘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리듯 반짝이고 있었다. 눈썹같은 그믐 달이 기울고 있었고, 거기에도 북두칠성이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다.

아침 9시 우리 배는 ‘글레시어 베이’에 도착했다. 천년설 빙벽이 지구온난화로 녹아내리는 현상을 톡톡히 볼 수 있었다. 그 얼음덩이가 둥둥 떠 맴도는

현장에서 나도 자연을 이렇게 만든 한 사람이라는 자책감이 일었다. 한 시간 남짓 머물다가 뱃머리를 돌리는데 갈매기떼가 뱃전을 떠나지 않는다. 아마도 배가 고파 그런가보다 하는 맘으로 과자를 손바닥에 놓으니 날쌔게 채가게 아닌가. 재미가 있어 몇번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안내서를 보니 갈매기에 먹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어 가슴이 뜨끔했다. 몇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101번 해안도로를 여행할 때 페이بل 비치를 지나게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동물들이 성인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자에게 발각되었으면 상당한 벌을 받을 수 있는 일. 가슴을 쓸어 내리며 서둘러 객실로 들어왔다. 잠시 쉬다가 이른 저녁을 먹고 극장으로 가서 마술 쇼를 보았다. 여행 둘째 날 밤 이 극장에서 뮤지컬 ‘맘마미아’를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배는 밤길을 도와 출항한 시애틀로 돌아가고 있었다. 다음 기항지는 ‘케치칸’ (Ketchikan). 새벽 6시에 케치칸항에 도착했다. 우리 일행은 수상비행기를 타고 1시간 남짓 하늘에서 ‘피요르드’ (Fjord)식 해안을 구경하는 것이었으나 시간 여유가 있어 시내 관광을 먼저 하기로 했다.

우리가 고른 것은 나무공장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연을 보는 것. 도끼로 통나무 자르기, 나무 기둥 오르기, 도끼로 과녁 맞추기, 톱질 빨리 하기 등 이었는데 두편으로 나누어 경쟁을 하는 것이었다.

오전 10시 30분 우리 일행 6명을 태운 수상항공기가 하늘로 올랐다. 하늘에서 보는 ‘피요르드’식 해안은 장관이었다. 크고 작은 봉우리에 갇힌 물은 아마도 만년설이 지구온난화로 녹아서

모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비행도중 산위에 있는 호수에 내려 사진을 찍게 하는 기장의 서비스가 고마웠다.

비행기에서 내려 배에 오르기 전 시내를 가로지르는 개천에서 또 연어의 힘찬 회귀의 몸부림을 볼 수 있었다. 나중에 안 일지만 이 도시의 별칭이 ‘연어의 수도’라고 한다. 또 이 도시는 원주민들이 만든 ‘토템’이 많기로 유명하다고 한다. 실제로 교회 앞에 3~4m는 넉넉히 될 만한 나무 ‘토템’이 세워진 것이 눈에 띄기도 했다.

배는 예정대로 오후 1시 30분에 ‘케치칸’을 떠나 밤을 새우고 하루 종일 항해하는 일정에 접어들었다. 도중에 갈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1시간 빠르게 맞추어야 했다. 배안 극장에서는 승무원들이 승객을 위한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의 출신 승무원들이 노래와 춤 악기 연주로 흥을 돋우었다.

크루즈 마지막 날인 토요일. 짙은 안개 드리운 태평양 연안을 달리는 ‘노르웨이저안 펄’ 호 13층 ‘데크’에서는 신나는 빙고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20달러를 투자해 5,000달러를 바라보았지만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배는 순조롭게 항해해 오후 6시 캐나다의 ‘빅토리아 콜럼버스’ 항에 닿았다. 이른 저녁식사를 한 터라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약한 버스를 타고 ‘부차드 가든’ (Butchart Gardens)으로 갔다. 한 사람당 입장료 80달러가 싼 것은 아니지만 주말에 하는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과감히 투자(?)한 것이다. 불꽃놀이는 밤 9시부터 30분간 펼쳐졌는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화려하고 내용이 다양했다. 보통 불꽃놀이는 하늘에 쏘아 올려 갖가지 모양을 만드는 수준인데 비해 이곳 불꽃놀이는 동물을 형상화한 모습이 질서있게 움직이게 하는 다양한 내용을 연출하고 있었다. 입장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우리 배는 밤 11시 ‘빅토리아 콜럼버스’ 항을 떠나 일요일 새벽 6시 시애틀항 66번 부두에 무사히 도착했다. 짐을 싸들고 허둥대는 육상여행에 비해 훨씬 편한 여행이었다. 노후에 꼭 크루즈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서양 사람들의 바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다.

사실 우리가 탄 배에는 승객이 약 2천 6백명. 승무원이 약 1천 3백명이 타고 있다고 들었는데 젊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노부부가 많았다. 지팡이를 짚는 사람은 양호한 편이고, 휠체어 신세를 지거나 보조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 정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그들, 그런 사람들을 알뜰히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부러웠다.

7박 8일 간의 알래스카 크루즈를 끝내고 일요일 오후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르면서 참으로 멋진 여행을 했다는 느낌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애에 이러한 감격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 알래스카 크루즈는 날씨를 고려해 5월부터 8월까지만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 통일이 미래다

One Korea, New Asia

## 성공적인 시니어 생활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백세 시대(Homo Hundred)’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은퇴는 ‘자유’, ‘만족’, ‘행복’을 뜻하지만, 준비 없이 맞는 우리의 은퇴는 ‘가난’, ‘외로움’, ‘지루함’을 의미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퇴직은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지만, 인생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자식들의 짐이 되고 싶지도 않지만, 무의미하게 내팽개쳐지는 신세로 전락하고 싶지도 않다. 은퇴한다고 경험과 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뒷전으로 물러난 처지에 있지만 Senior로서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고 싶은 욕망과 열정은 그대로다. 무언가 가치 있고 사회에도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은퇴가 의미하는 가난은 ‘생산 활동 참여’로, 외로움은 ‘생활 공동체’ 구축으로, 지루함은 ‘취미 생활 등 자아실현 활동과 봉사활동’을 축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고 이를 실천해 가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가장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긍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 없는 노후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다. 젊을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지만, 시니어에게 실패는 최소화해야 한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나 준비 없는 창업 등은 실패를 예비하는 것이다. 스스로 준비하는 은퇴, 성공적 은퇴를 위한 정보 공유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등 할 일이 많다.

긴 말할 필요도 없이, 시니어들의 지식과 경험은 사회적 자산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쌓아온 우리의 오랜 경험과 다양한 능력은 사장되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사회적 자산이다. 생산적으로 살리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이는 시니어들의 삶의 가치를 살리는 보람 있는 일인 동시에 책무이기도 하다. 시니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또한 다양하고 많이 있다.

시니어들의 다양한 생활 공동체(communitiy) 활동은 진정한 시민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사회의 바탕이 된다. 직장갑외가 집만 왕래하는 생활은 퇴직 후 갈 곳조차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한다.

일에 매몰되어 마음뿐이던 취미생활이나 관심분야에 관한 공부, 주제가 있는 여행과 같은 다양한 활동, 건강 정보 공유나 힐링 체험 등의 건강

증진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줄 뿐 아니라 직장 생활과는 판이한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시민사회로 탈바꿈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7일, 시니어 어치브먼트(Senior Achievement·약칭 SA) 모임이 첫발을 내딛는다. 이에 더해 SA는 ‘백세시대’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보는 허브(Hub)가 되기를 기대한다. 장수는 축복이지만 준비 없는 백세시대는 우리 모두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다룰 바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백세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 환갑시대의 발상과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갑시대와 백세시대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환갑시대에는 ‘여생’이 있지만 백세시대에는 ‘생’만이 있게 된다. 여생과 생의 단 한자의 유무 차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은퇴와 같은 단절이 없는 연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 농민, 연예인, 예술가들처럼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바라지 않는 한 은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현역’에 장애가 되는 제도나 정책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연령에 따른 차별이나 규제부터 없애야 한다. (‘연령제한 금지법’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법제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금제도나 교육제도 등도 근본부터 달라져야 한다.

우리 모두 백세시대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 세계화, IT와 함께 앞으로의 사회를 근원에서 바꿀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SA가 기여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국문]

## 이종완 원로회우 별세

이종완 원로 회우가 9월 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사진)

향년 85세. 고인은 1929년 1월 2일 서울 출생으로 중앙대 국문과를 수료하고 1959년 동화통신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



계에 몸 담았다. 1965년 중앙일보 창간 시 편집국 사진부 기자로 발탁되어 출판부, 사진미술부 부장 부국장을 거쳐 1984년 정년퇴직했다. [국문]

## 이종완 선배의 명복을 빕니다

이해범(본회 회우·전 중앙일보출판국 부국장)

지난 9월 5일 금요일 오후, 존경하던 이종완 선배의 빈소를 찾았을 때, 80년대 명 가드로 농구코트를 주름잡던 아들 성원씨는 아직 미국에서 귀국 중이었고, 두 따님 향숙씨, 성숙씨, 그리고 두 사위, 또 할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외손자 동혁이가 이미 흰칠한 청년이 되어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송이 흰 국화꽃을 선배의 영전에 바치는 그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추억의 비늘들이 저를 과거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국장을 처음 만난것은 60년대 말, 어떤 VIP의 도착을 취재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에 갔을 때 엮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때 사진기자들은 조금이라도 촬영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위해 자리다툼을 하며 웅성거리는 현상이었는데, 다소 늦게 도착한 새내기 기자인 저는 선배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 난감해 하고 있을 때, 짧은 스포츠 머리에 덩칙해 보이는 몸매의 사나이가 빙그레 웃으며 틈을 내 주셨는데 이 분이 바로 이종완 기자였습니다.

언제인가 밤중에 일어난 사건 현장에서 제가 플래시가 고장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그는 흔쾌히 플래시를 빌려 주어서 간신히 낙종의 위기를 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던가. 저는 그 분의 집요한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 중앙일보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고, 그분이 부서

를 출판국으로 옮기자, 덩달아 저도 이국장을 따라갔었지요.

어느날 제가 신당동에 있는 이국장택을 방문했을 때, 북통만한 좁은 방을 가득 채울 만큼 커다란 스피커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이 짙짙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양반이 이렇게 클래식을 좋아했던가? 물론 이미 오래전 그 분이 공군악대 출신이고, 큰북의 고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는 광인 줄은 미처 모르고 있었던 터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컬러사진전을 열던 무지개회라는 서클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사진작가이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분은 음악에 살고 사진에 산 예술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그 분을 기리는 것은 그가 후배의 실수를 나무라기 보다는 감싸 안는, 마치 따뜻한 봄날 병아리를 품는 어미닭의 날개처럼 푸근하고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를 비롯한 후배들이 촬영에 실패해서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난감한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그 때마다 그 책임을 자신이 떠 안았고 문제를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던 방파제였고 해결사였습니다.

이 국장님, 아니 이종완 집사님.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하십시오. [국문]



## 본회 산악회 ‘국토대청소운동’ 펼쳐

인천 백운산 등반 20여명참가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정운종·본회 상임이사)는 지난 9월 23일 인천광역시 운서역 인근 백운산(해발 255.5m)에 올라 천목을 다졌다. 그리 높지도 않고 가파르지도 않은 백운산은 가족 산행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정상에

서면 사방이 막힘이 없어 인천시의 전경과 넓게 펼쳐진 바다, 섬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행에 동참한 20여명의 회우들은 이날 백운산 정상에서 ‘국토대청소운동’ 캠페인(사진)도 벌였다. [국문]



# 행복희망 을 만들어요



SGI는 日蓮大聖人 佛法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평화 · 문화 · 교육운동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행복의 가치를 창조하는 대승불교단체입니다



영등포희망문화회관 남광주행복문화회관 해운대희망문화회관 통일로평화문화회관 경기도 이천평화공원 이케다 기념강당 화광신문사 제주한일우호연수원 진천연수원 행복유치원

## 회우동정

가나다순

### 제5회 백교문학상 시상



권혁승(백교문학회 회장)원로회우= 10월 2일 오후 강릉 사모정공원에서 제5회 백교문학상 시상식을 갖는다. 백교문학상은 효친사상을 되살리고 애항심을 함양하기위해 권혁승 원로회우가 2010년에 만들어 시, 수필 부문에 상을 주고 있다. 금년 대상에는 정재돈(경기 수원)의 '항아리'가 뽑혔다

### '자유민주와 사회민주주의' 토론회



박범진(미래정책연구소 대표)회우= 9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 세계문화예술인협회 명예회장



이보길(전 KBS해설위원)회원사업위원장= 사단법인 세계문화예술인협회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주최한 제22회 서울국제미술제에서 명예회장으로 활약. 이날 서울국제미술제에는 세계40개국의 유명미술작가 150여명이 20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 '이승만 포럼' 열어



인보길(뉴데일리 회장)부회장= 9월 18일 오후 서울 정동 제일교회 아펜셀러 홀에서 '이승만 포럼'을 열었다. 김낙환

목사의 '이승만 멘토 아펜셀러'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김준하 이종식 이도형 김종현 박범진 김은구 회우가 자리를 함께했다.

### 호국영웅기장 받아



임학수(전 동아일보 편집 부국장)원로회우= 6·25종군기자로 '6·25 전쟁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 규칙' 제1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호국영웅기장을 수여받았다.

### 김규홍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취임



홍용수(NSI 자산관리위원회 회장)원로회우= 9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있는 사단 법인 김규홍선생기념사업회 발기인 총회에서 회장에 취임. 고 김규홍(일명 김복)선생은 일제때 육군소장에 임명 됐던 인물로 3·1운동과 중국신해혁명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분으로 이날 그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발족한 것.

### '한일 단파 방송 연락운동' 기념식



한영섭(한국방송인동우회 회장)원로위원회 위원장= 9월 26일 오후 KBS 본관 2층 광장에서 '한일 단파방송 연락운동' 기념식을 가졌다. 방우회는 '한일 단파방송연락운동'을 기념하는 물망비(勿忘碑)를 KBS 본관 옆에 세우고 해마다 기념식을 갖는다.

## 본회 조창화고문 첫 서예전

10월 16일부터 관훈동 백악미술관서

본회 조창화 고문의 첫번째 서예전이 10월 16일 오후 5시 종로구 관훈동 백악미술관(관훈클럽 신영기금 회관 맞은 편)에서 열린다.

23일 오후5시 까지 열리는 이



번 서예전엔 조고문이 평소 갖고 닦아 온 서예 작품 5체와 갑골문 40여점이 전시된다. 많은 회우들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는데 화환 화분이나 축의금 등은 절대 사양하고 있다.

## 일산언론인모임 8순회우 축하

### 회장에 이태영 본회상담역

고양시 일원에 거주하는 언론인들이 매월 두 번째 금요일마다 만나는 일산언론인모임(약칭 일언이금회)은 9월 12일 오후 6시 마두역 근처 한 음식점에서 올해 팔순을 맞은 손세일 이역순 전 신병 회우의 축하케이크 절단식을 가졌다. 이 날 모임에서는 또한 이태영 본회 상담역을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 ▶ 회우 자녀 결혼 ◀

도준호 회우= 9월 27일(토) 오후 1시 서울컨벤션센터 (도심공항터미널 3층)

장남 홍석군 결혼

손위수 회우= 10월 3일(금) 오후2시 명동대성당 차남 태민(시문)군 결혼

## 구본건·양휘부 회우 본회 발전기금 기탁

구본건 원로회우(88·전 대한여행사 사장)가 9월 18일 "날로 발전하고 있는 대한언론인회에 미력이지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발전기금 1,000,000원을 본회에 보내왔다.

합동통신과 서울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했고 국회의장 비서관, 대한여행사 사장 그리고 양정의숙 이사장을 지낸 구 원로회우는 창립당시인 47구락부와 비교해보면 오늘의 대한언론인회의 발전이 놀랍다며 지난 날을 회고했다.

창립당시 본회 사무실에 집기를 기증하기도한 구 원로회우는 현재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데 건강하다."고 근황도 전했다. 또 현재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양휘부



구본건 회우



양휘부 회우

회우(71)도 발전기금 500,000원을 보내왔다. 대한일보 기자와 KBS보도제작국장 해설위원장과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Kobaco사장을 지낸 양 회우는 지난 3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의료지원비 500,000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500,000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놓은 것이다. 양 회우는 현재 건강을 회복, 현직에 집무중이다.

## 가을철 문화탐방 신청받습니다

아래와 같이 가을철 문화 탐방행사에 회우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아 래-

일 시 : 2014년 10월 22일 오전 8시 프레스센터 앞 출발

가는 곳 : 보은군 일원 문화유적지(범주사, 삼년산성, 동학기념공원 등)

신 청 : 2014년 10월 15일 하루(선착순 80명) 전화 : 732-4797/4798

大韓言論人會

### ▶ 주소·전화번호 변경 ◀

김수웅 회우=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33 1401동 325호  
(마곡동 마곡M빌리지14단지)

노진호 회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구시울 길 25, 102동 1004호  
(삼호2차아파트) (우 157-210)

박영래 회우=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342 더클래식 500, 4302호  
(우 143-190) 010-5221-4915

박재권 회우= 경기 분당구 정자 1로 1, 코오롱 트리폴리스 C동 2207호

이달영 회우= 마포구 동교동 198-31 수성빌딩 2층 한국홍보연구소 (우 121-898)

이민희 회우= 강남구 광평로 19길 10, 1007동 402호  
(수서동 746, 까치마을 아파트) (우 135-520)

이배영 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71번길 68, 벽산 1차 아파트  
109동 1005호 (우 448-755)

이재권 회우= 경기 과천시 주암동 6511 201호 010-5325-1021

장석훈 회우= 자택 031-966-9702

황우권 회우= 010-3710-4718

###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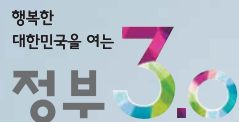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4년 8월 29일 부터 9월 29일까지)

권기진(14) 윤기로(14)  
김문진(14) 이용권(14)  
김선옥(14) 이창호(14)  
김성림(14) 조덕연(14)  
김성수(14) 조원석(14)  
김수웅(14) 최선록(15)  
김휴선(14) 홍원기(14)  
엄영섭(14)

##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www.kogas.or.kr



# 국민행복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과 함께 달립니다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가꾸어온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과의 기술개발 협력사례 ③

### 초음파식 가스유량계 / WISE Control INC.

WISE Control INC.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초음파식 가스 유량계는 LNG 생산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산기자재 의존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의 안전이 완성됩니다



모든 안전에는 원칙과 수칙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전이 곧 도민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으로  
1,250만 도민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걱정 없는 행복한 경기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 굿모닝! 경기도